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10 1983년 4월1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April 18,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19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본사주최, 5월13일 UT콘보케이숀·홀

모국연예인 초청쇼

이주일·이은하·김연자·이용등 대거 출연

본 토론토·한국일보사는 본사가 제정한 한인민족상 기금모금을 위해 모국연예인 초청쇼를 오는 5월13일(금) 저녁 7시부터 토론토대학교 콘보케이션·홀(Convocation Hall)에서 갖는다.

이번 대공연에 초청되는 연예인은 모국의 정상급 코메디언인 "못생겨서 미안합니다"의 주인공 이주일씨, 대형가수 이은하양, 멜로디의 여왕 김연자양, 인기가수 이용군, 최정상급 그룹사운드 「호랑나비」등이다.

대형코메디언 이주일씨는 걷잡을 수 없는 웃음 폭발, 특유한 개그와 어리숙한 제스처로 국내는 물론 해외교포들에게 널리 알려진 익살꾼으로 지난해 미주지역 교포들에게 선풍적인 모국연예인 붐을 일으킨바 있다.

어은하는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과 「아리송해」등 150여곡의 힛송으로 팬들에 친숙한 가수이며 김연자는 힛트곡 「진정인가요」외에도 흘러간 노래에서 최신곡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불러 정열적인 가수로 모국에서는 「김연자붐」이 일고 있을 정도이다.

82년 MBC가수왕상에서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한 이용은 힛트곡 「잊혀진 계절」로 모국은 물론, 해외교포들에게도 인기를 타고 있는 가수.

정상급가수가 이번처럼 해외에서 한자리에 모여 공연하기는 어려운 일로 「호랑나비」의 연주와 반주까지 곁들인 이번 공연은 교민들에게 고향을 물씬 생각나게 하는 감격스런 공연이 될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또 이들 연예인은 국내에서 정상의 인기를 누릴뿐만 아니라 사생활면에서도 모두 모범적인 사람들로 평가받는 연예인들로 교포들에게 국내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예인은 「무대에서의 연기나 노래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교포마다의 대화나 행동에서도 이제 고국의 연예계, 연예인도 놀랄만큼 발전했음을 보여주겠다」고 흥분과 기대에 차있다.

이들 연예인들은 북미순회공연의 일환으로 토론토외에도 미국의 10개도시를 순회공연한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의 주인공 이주일
토론토에서 무엇인가 보여주겠다고 장담

◆못생겼다구요? 진짜 못생겼나 다시한번 보세요. 이귀·코·눈·입·이마、남자라면 이렇게 생겨야해요」 자칭 신사라며 틈틈히 거울앞에서 걸음걸이、화법등을 연구한다는 코미디언 이주일。몇올 남지않은 머리칼을 연신 쓸어올리며 웃지말라고 야단이다。

토론토 신문들 비판적보도

투표장에 줄선 교민들에 대해

조·클락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에트닉계 연방보수당원들중 한국계 교민들의 움직임이 토론토 신문들로부터 다소 비판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 7일 토론토·선지가 스카보로·웨스트 보수당대의원 선출대회에서 투표한 한국계 당원의 일부가 영어도 못하는 급조당원이라고 비꼬아 보도한데 이어 12일자 토론토·스타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 투표장에 줄을 선 한국교민들을 "가짜(Phony)"라고 비난한 한 보수당 중진당원의 논평을 실었다.

스타지는 이날 "클락후보의 에트닉표 동원작전 중진급 당원들을 당혹케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클락이 에트닉이 많은 메트로·토론토에서 에트닉계 신입당원을 영입, 클락지지 대의원을 당수선출 전당대회에 보내려는 작전은 당 중진급인사의 지지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예를 들어 11일밤 욕·웨스트 대의원 선출에서 한국계 캐네디언이 조·클락지지자를 대의원에 선출시키기 위해 투표장에 줄을 서있는 것을 본 중진급 당원 리차드·글레져씨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은 가짜"라고 말하고 "신문에서 보수당이 에트닉의 지지에 관심을 쏟는다는 보도를 읽기는 했지만 급작히 가입한 당원들이 저렇게 많이 줄을 선다는 것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볼만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날밤 총투표 81표중 40%가 한국및 베트남계의 표로 그 결과 동지역 대의원 6명중 적어도 4명의 친클락계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또 다른 당 중진급 밥·스와닉씨는 또한 "급조"당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온 "날라리들"이라고 논평했다.

한국계 보수당원들을 이끌고 동투표장에 나온 홍중표씨(Jay Hong)는 "그같은 논평은 정당하지 않다. 보수당원은 반드시 흰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고 반박, "이민자는 참정권도 없는 2등시민인가"라고 항의했었다.

홍씨는 오는 21일 돈·밸리 이스트지역 대의원으로 출마하는 조·클락지지후보이다.

한편 한국계 교민들의 동정이 이곳 신문에서 다소 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있은 데 대해 익명을 요구하는 교민 K씨는 투표장에 나선 교민들이 "우선 보수당의 정책을 좋아하고 당지도자 선출문제에 관심과 견해가 있어야할 것이며, 또한 교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이곳 정계에 진출하려는 개인은 교민코뮤니티의 요구를 대변하려는 의욕을 병행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과연 얼마나 많은 교민이 진정으로 보수당과 특히 조·클락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의사 미국정부에 전달 용의없다"

— 일본외무성 —

(도쿄14일=연합)일본 정부는 14일 북한의 미국에 대한 관계개선의사를 미국정부에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야께·와수께 일본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바락 에집트대통령이 최근 평양을 경유, 일본을 방문했을때 북한측의 대미관계개선 희망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뿐 공식적인 메세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와수께국장은 또한 북한과 미국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것임을 확약한다고 말했다.

社 告

미인대회 모집 마감연기

본사주최 제8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접수마감을 4월20일로 연기합니다.

마음준비가 덜 되거나, 망설이다가 절호의 기회를 놓친 미녀들을 위해 3일간 모집을 연장하였으니 결단을 내려, 때를 놓치지 말고 출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토론토 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1-416-533-2361

— 〈오늘의 시세〉 —

CAN$1.00 = 622.72원
CAN$1.00 = US 81.13센트
금(런던) = $536.80
은(토론토) = $14.32/oz.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로렉스 / 귀국선물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R 622-5147

기간
4월15일~23일
전품목
봄맞이
대매출
30~50% OFF
와보시라! 비교하시라!

ㅁ테스트 쵸이스 커피
$5.49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신경암걸린 어린생명 구해

전신 방사선시술로 암세포 말살

미네소타 김태환교수 미국의료계 화제

(LA지사)신경조직암으로 숨져가는 2세 어린이에게 최신의료기술인 전신방사선치료법(Total Body Radiation)으로 생명을 소생시키는데 노력한 교포의사 김태환박사(44세, 미네소타의대부교수)의 의술이 미국의료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북가주 콘코드에 살고 있는 라켈·에스칼람버(2)양은 신경암으로 사경에 이르러 골수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위험에 처했다.

에스칼람버양의 신경암치료가 북가주지역 의료시설로는 불가능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미네소타의대부속병원으로 후송케됐다.

그녀의 전신신경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전신방사선치료가 시술됐는데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의사가 교포 김태환 박사였다.

김박사는 지난5일 에스칼람버양에게 약 29분간 전신방사치료로 체내의 신경조직암세포를 죽였으며, 또한 환자의 면역상태를 저하시켜 다음단계 치료인 골수이식을 원활케 하는데 성공했다.

이 전신방사선치료후 에스칼람버양은 즉시 그의 언니 크리스타(5)양으로 부터 약2카트정도 골수를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그녀의 생존가능성은 50%로 의료진들은 진단하고 있다.

방사선치료후 김박사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면서, "앞으로 2주~3주정도가 중요한 기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경암은 어린이들에게 발병하는 무서운 병으로 현재로서는 초기발견으로 전신방사선치료법 이외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스칼람버양이 신경암으로 생명을 잃게된다는 사실에 고향인 콘코드주민들이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북가주 많은 신문들이 이를 호응해 화제를 모았다.

이 캠페인으로 약25만달러의 치료비가 모아져 에스칼람버양은 김태환 박사가 있는 미네소타의 대부속병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에스칼람버양이 치료를 받으려 미네소타로 후송될때 북가주지역 많은 신문사 보도진들이 함께 동승해 취재활동을 벌였으며, 현지에서 성공적시술이 끝나자 AP통신을 비롯, 현지의 ABC, CBS, NBC계열방송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태환박사는 경기고출신으로 64년 서울의대를 졸업해 69년 도미하여 미네소타의대병원에서 연구활동을 넓혀 현재 치료방사선과전문의 사겸 의대부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10.75% 로 하락

폐쇄모기지 이자율(Closed Morgage)

집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한 융자금리가 4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몬트리얼은행은 1년 폐쇄모기지(Closed Mortgage)이자율을 10.75%로 내렸으며 이는 79년 11월의 1년 폐쇄모기지가 처음 도입된 때의 15.25%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오픈모기지는 11.75%로 떨어졌다.

몬트리얼은행은 5년형 모기지 이자율은 13.25%로, 개인대출금리는 13.5%로 내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이자율인하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얼은행이 이날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아 앞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해져 이자율이 계속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HIP 보험금 다음달 인상(?)

온타리오의 건강보험인 OHIP보험금의 인상이 다음달 추정부예산안에 반영될지도 모른다고 프랭크·밀러 온타리오 재무장관이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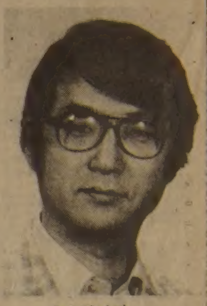
밀러장관이 OHIP보험금을 올리게 될 경우 이는 1년내에 2차례 인상이 된다.

밀러장관은 지난해 5월 추정부예산에 OHIP보험금을 17%인상, 개인의 경우 23달러에서 27달러로, 가족의 경우 46달러에서 54달러가 되었다.

〈현대적 속담풀이〉

『금강산도 식후경』

오강남(종교학박사)



◆오강남씨

금강산 일만이천봉 그 아름다운 기암절벽도 허기진 배를 가지고서는 별볼일 없는것--구경이고 뭐고 일단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이니 싸가지고 온것을 풀어놓고 「민생고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다.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마슬로우가 말하는 이른바 「필요의 계층」(Hierarchy of needs)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것 같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배고픔은 갈증이나 잠자는것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한다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빵으로만」살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오직 이런 생리적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야 비로소 심리적·정신적인 것에 마음을 쓸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단 빵이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안전이나 안정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든가 소속감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인정이나 존경, 자존심같은것을 위해 힘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능성의 계발,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에 대한 희구가 따른다는 설이다.

일리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육체적·생리적 요구가 채워지기 전에는 심리적·정신적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을것을 일단 먹은 다음에는 금강산구경을 가겠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먹는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구경을 하기 전에 치러야할 준비과정이라는 의식이, 처음부터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정신과의사 빅톨 프랑클도 마슬로우의 설을 비판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 배가 아무리 고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고픔을 해결하는것 자체가 생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보다 높은 무엇을 추구하는데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이런 목적의식을 가질 때만 의미있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A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금강산밑에서 식사하는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금강산에 올라가 그 절경을 구경하는 감격을 가져본다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채, 아랫터에서 먹는것에만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먹고, 잘 먹고, 맛있는것 먹고, 비싼것 먹고, 남보란듯 먹고--오로지 먹기에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친다. 먹을것을 먹고 배가 채워져 다리에 기운이 생겼어도 금강산에 오른다고 하는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운을 먹을것을 찾는데 다 써버리고 만다.

고개만 들면 멀리 금강산의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보이고, 귀만 기울이면 금강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소리도 들리고, [illegible]산 차리면 금강산[illegible]한 정기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으련만, 「식후경」의 「식」「식」하는것만 외우느라 이제 금강산이라는 것이 있는것조차 잊어버린지 오래다. 유일한 관심은 산밑 어디에 가면 먹을것이 많고, 누구에게 가면 무슨 음식을 구할 수 있고, 무슨 음식을 가져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가져다주면 무슨 음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 수지가 맞고·· 이렇게 한평생 산밑 언저리만을 맴돈다.

A씨만의 일일까? 우리에겐 금간산구경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일까?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일어서겠다는 계산이 있는가? A씨처럼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도 어느정도 배가 불렀다. 본래의 목적대로 금강산구경을 위해 산으로 발길을 옮길 때도 된것 같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따라 고운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은퇴후에도 「이화」위해 숨은봉사

—시카고를 방문한 김옥길·김동길 박사

수상후 모금차 방문한 김옥길 전총장

김동길 교수는 3개교회서 신앙간증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 박사와 전 연세대 부총장 김동길 박사가 지난9일 시카고를 방문했다.

김옥길 박사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로부터 평생을 기독교계와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로 표창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를 수상하기 위해 이번 미국여행을 온 것이다.

김 전총장은 방미기간중 재미 이화여대 동문들을 대상으로 이대 새도서관 전립 기금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모금을 위해 서예가 난곡 김응섭씨가 묵화, 서예작품을 기증해 이의 판매대금을 도서관기금으로 헌납하리라 한다.

8일간의 시카고 체재중 두사람은 14일 하오7시30분 뉴 코리아 하우스에서 가질 이대·연대합동 환영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식씨댁에 여장을 푼 김옥길 박사를 위해 이중식씨내외는 9일 20여명의 시카고, 이화가족을 초청, 환영만찬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동길 박사는 시카고 체재중 활발한 전도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10일 낮에는 애스버리 감리교회에서, 이날 하오7시30분에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했고, 11일,12일,13일에는 시온장로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했다.

김옥길박사는 16일 워싱턴을 향해 출발하며 21일에는 낙스빌, 22일은 내쉬빌, 23일에는 L.A.를 방문하여 이화동문들을 접할 계획이다.

김옥길 박사는 이화설립자 김활란박사의 후계자로 이화여대를 이끌어오다가 79년 최규하 대통령 재임시 문교부장관으로 반년간 시무하며 급진적인 쇄신 행정으로 한국 메스컴의 각광을 받기도 했었다.

장관직을 물러난 후 이화를 위해 더 일해 달라는 동문 재단측의 권유를 뿌리치고 "나 혼자만이 총장감은 아니다. 후배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미있는 말을 남기고서 자진 은퇴하여 서울을 떠나 수안보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화를 위해 숨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지사발)

▲ 이중식씨 댁에서 가진 환영 만찬회 에서의 김옥길, 김동길 박사 남매.

레이건대통령 방한 초청

전대통령, 국방장관통해 친서전달

(워싱턴14일=연합)레이건 미대통령은 14일 윤성민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간의 기존방위공약에 대한 확약을 재천명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는 윤장관은 이날 레이건대통령에게 전두환대통령의 미대통령방한초청친서를 전달했다.

윤장관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전대통령은 레이건대통령의 방한으로 주한미군의 사기진작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전체의 안보에 커다란 고무가 될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중요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의 국제정치에도 중요한것임을 믿고 있다는 전대통령의 견해를 피력했다.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주선으로 마련된 백악관 요담에는 와인버거국방장관, 유병현주미대사, 리차드·워커 주한미국대사, 리차드·아미태이지 국방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이 배석했다.

주립공원 캠핑장 사용료

일률적으로 25센트 인상

온타리오주 천연자원부는 금년봄 시즌부터 주내의 모든 주립공원내의 캠핑장소 1박사용료를 일률적으로 25센트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욕및 전기시설이 포함되는 풀·써비스(full service)는 $8.25, 목욕시설만 제공되는 써비스는 $6.50, 캠핑장소는 $6.25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일박하지 않는 주간방문자 입장료는 $2.50, 캐누대여료 $4는 종전과 같다.

현행 무료입장의 혜택을 받던 시니어 캠퍼들도 금년 6월17일부터 9월의 노동절까지의 금요일과 토요일만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며 평일은 무료이다.

그러나 23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시니어 캠퍼들은 종전과 같은 무료혜택을 입는다.

컴퓨터 총 전시장 캐나다 최초 개설준비

캐나다 최초의 컴퓨터제품 총전시회장이 내년 9월 미시사가에 생긴다.

시스템즈·마트(Systems Mart)라고 불리울 이 7층짜리 빌딩은 공항부근의 인터내셔널·센터의 일부가 되며 60여개의 컴퓨터 회사가 이곳에서 제품을 전시판매하게 된다.

이 전시장에서는 또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현장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시스템즈·마트의 건설은 인터내셔널·센터 소유주인 TICC회사가 맡으며 건축비는 약3천만달러에 총면적은 3천평방피트이다.

『교향악파 가곡의 밤』

24일 로이·톰슨·홀

토론토한인교향악단(지휘 김승순)이 주최하는 교향악과 가곡의 밤이 오는 24일(일) 저녁8시 로이·톰슨홀에서 개최된다.

교민 음악계로서는 처음으로 로이·톰슨·홀에서 공연되는 이번 가곡의 밤에는, 테너 엄정행씨, 소프라노 전지현씨, 바라톤 신경욱씨가 초청되어 토론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주연씨와 함께 귀에 익은 가곡을 선사한다.

이날 공연작품으로는 오케스트라 연주로 한국민요 모음곡, 칼멘조곡 1번등 세곡과, 전지현씨의 〈옛동산에 올라〉, 〈신 아리랑〉등 3곡, 엄정행씨의 비목, 박연폭포등 3곡, 신경욱씨의 내마음, 가고파등 3곡, 이주연씨의 푸치니의 〈토스카〉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3곡이다.

교수65명과 직원110명 감축

토론토대학 예산 삭감으로

토론토대학은 예산감축으로 인해 내년도에 65명의 교수와 110명의 직원들을 감축하고 일부 강의를 폐쇄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83-84년도 예산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문교성의 지원이 예상보다 적어 내년 한해동안 총 23만4천여달러의 적자를 보게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금년도에 주내 16개대학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7.5%씩 인상했으나 UT의 지원금은 금년도 등록학생수가 2%밖에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만 증액되었다.

[illegible]머타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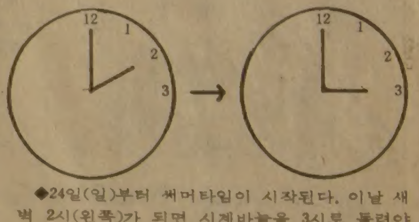
24일 새벽2시부터

오는 24일 일요일부터 금년도 써머타임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날 새벽 2시에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겨 3시로 시계바늘을 돌려놓아야 한다.

써머타임은 오는 10월 30일(일)까지 계속된다.

10월30일에는 거꾸로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바뀌어져야 한다.



◆24일(일)부터 써머타임이 시작된다. 이날 새벽 2시(왼쪽)가 되면 시계바늘을 3시로 돌려야 한다.(오른쪽)

제7차 캐나다 한인학자회 회의안내

이번 학자회의는 교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전체 교민에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많은 교민의 참석과 아울러 활발한 질의를 기대합니다. (특히 몬트리얼 이외지역에서 참가하기 바라는 교민을 위해 약간의 여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날 자 : 83년 5월7, 8일
□장 소 : 몬트리얼 할리데이·인 호텔

★문의처 : 학자회 회장 정희수 (514)465-4550(R), 282-3372(B)
총무 정영섭 (514)341-1880(R), 343-6847(B)
1415 St. Hubert, Montreal, P. Q.
☎ : (514) 842-4881

□회의일정 : 5월7일(토)

10시 : 등록
11시 : 정희수 학자회장 환영사

패널A : 전공분야 논문발표및 토의

사회 : 김원겸(위니펙대)

논문발표
1. 오충열박사(알버타대)--알버타대와 한국개발원간의 학술교류.
2. 주하균박사(핼리팩스), 유봉열박사(뉴브론스위크대)--노바·스코시아의 블루베리생산.
3. 이정섭씨(맥길대)--유전공학에 대하여.

토론자
1. David 배 박사(알버타대)
2. 정영섭박사(몬트리얼대)
3. 신복균박사(욕대)
4. 이성수씨(B.C.대)

★13:00~14:30 이규현대사 초청연설및 오찬.

패널B : 캐나다 교민생활(I)

사회 : 박종열박사(오타와)
14:30~16:00 논문발표
1. 오기송박사(콩코디아대)--교민단체운영상의 문제
2. 이수신씨(캐나다 외환은행전무)--교민 비지니스
3. 정희수박사(퀘벡대)--교민의 사회·문화적응 (몬트리얼지역을 중심으로)

토론자
1. 유재신박사(토론토대)
2. 이상철박사(연합교회목사)
3. John Kim씨(오타와)
4. 김봉환박사(위니펙)

패널C : 캐나다 교민생활(II)

사회 : 최태호박사(해밀턴)
16:15~17:45 논문발표
1. 김보경박사(토론토)--인종차별과 교민.
2. 이수민박사(라발대)--한국인의 윤리와 이민생활.
3. 유희자박사(토론토)--교민사회의 노인, 여성, 어린이문제.

토론자
1. 김정근씨(온타리오 이민사연구소)
2. 송광석박사(오타와)
3. 조미래씨(토론토·한국일보)

5월 8일(일) 9:30~11:30 학자회총회및 회장단선출.

시카고史上 첫 黑人市長탄생

黑白대결「워싱턴」勝利

"나의 당선은 美民主主義건강 입증된것"

(시카고=외신)전국적인 관심속에 12일 진행된 시카고시장선거에서 민주당소속 해롤드·워싱턴 후보가 공화당의 버나드·에브런후보를 누르고 당선, 시카고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시장이 되었다.

양후보의 선거운동은 흑·백인종문제로 전국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흑인계의 기록적 투표참여가 해롤드·워싱턴후보당선을 결정지었다.

해롤드·워싱턴시장은 흑인투표의 97%의 지지를 획득했으나 백인으로부터는 18%를 받아 전체투표의 약52%를 기록해 48%를 받은 에브런을 눌렀다.

해롤드·워싱턴 신임시장은 이날밤 11시30분(서부시간)승리파티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나의 당선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것을 입증한 본보기」라고 말했다.

신임시카고 시장으로 당선된 해롤드·워싱턴은 전임 제인·번 여시장으로부터 시장권한을 인계받아 4년간 재임하게 된다.

봄철되자 도로공사 본격화

메트로·토론토… 750만달러 소요

봄철로 접어들면서 하이웨이등에 대규모 도로보수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메트로·토론토는 금년도에 750만달러를 들여 보수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하이웨이 401의 배서스트와 하이웨이 400사이의 동향진입로(Eastbound Collector Lane)와 하이웨이400와 409간의 서향진입로 보수계획이 포함돼있다.

이외에도 하이웨이427과 블루어 웨스트, 427과 래스번·로드(Rathburn Rd.), 던다스·스트릿과 CPR트랙및 노스·퀸·스트릿이 만나는 곳, 퀸·일리지벳·웨이의 키플링 브리지도 보수된다.

교민가정에 도둑

$4,200상당물품 도난

교민주택에 도둑이 들어 4,000여달러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메트로경찰 보고에 따르면 파이어사이드·드라이브(Fireside Drive) 48번지에 위치한 김치국씨 소유 단독주택에 지난 12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사이에 옆창문을 부수고 도둑이 들어와 보석, 비데오, TV 세트등을 훔쳐 달아났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금주의 행사

— 1983년4월18일(월)~24일(일) —

◆21일(목)~24일(일) 매일 하오7:30(토요는 상오11시)
'83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집회
강사 : 김선운 목사
곳 : 베델교회(395 Old Yonge St, Tor.)
주최 : 세계복음운동토론토지회 (270-3092, 626-5382)

◆21일(목)~24일(일) 매일 하오5:30
심령부흥성회
강사 : 김형태 목사
곳 : 오순절장로교회(754 Indian Rd, Tor.)
연락전화 : 245-4770

◆22일(금)~24일(일) 매일 하오7:30
전도간증집회
강사 : 원충연 집사
곳 :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665-3132, 482-4577)

◆23일(토) 상오9시~하오7시 성전건축바자회
곳 : 토론토중앙교회(502 Bathurst St.)

◆23일(토) 하오6시
제8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곳 : 힐튼·하버캐슬호텔 1층
주최 : 토론토 한국일보사(Tel: 533-2361)

◆23일(토) 하오8시
해밀톤한인회 친목의 밤
곳 : Cyril Church(204 Park St, 북해밀톤)

◆23일(토) 상오9시 춘계남녀배구대회
주최 : 토론토 한인배구협회
곳 : West Humber고교 (1675 Martin Grove, Tor.)
문의처 : 923-3846(문영환)

◆24일(일) 하오8시 교향악과 가곡의 밤
주최 : 토론토한인교향악단
곳 : 로이·톰슨·홀

★분실공고★

집행위원이 보관하고 있던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입장권 번호 601~610까지 10매와 221~230까지의 10매가 분실되었기에 무효공고합니다.

— 토론토 한국일보사 —

金聖鍾作 흙과 사나이 (殺人과 恐怖의 추리소설) <213>

헤로인 ⑧

일본인은 구석에 머리를 처박은 채 쭈그려졌다. 그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신음했다. 오른쪽 다리가 온통 피에 흥건히 젖어있었다.

『일본인인가?』

그가 일인을 가리키며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겁에 질린채 끄덕였다. 겁에 질린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일어나.』

사나이는 일본 말로 명령했다. 일인은 신음하면서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았다.

『저걸 내려.』

사나이는 선반위에 있는 가방을 가리켰다.

여자가 일어섰다. 그녀는 창피한것도 잊은채 벌거벗은 몸을 완전히 노출시켰다. 어떻게보면 그의시야를 어지럽히려는 수작 같기도 했다. 그녀는 선반 위로 손을 뻗어 가방하나를 내렸다.

가방속에는 하얀 분말의 헤로인 가득

『두 개 다 내려.』

그녀는 시키는대로 가방을 다 내렸다. 두 개의 가방이 침대위에 놓여졌다.

『가방을 열어.』

그녀는 열쇠로 가방을 열었다. 옷이 들어 있었다.

『옷을 치워.』

그녀는 시키는대로 순순히 옷을 치웠다.

그는 몸을일으켜 침대로 다가섰다. 그리고 가방속을 한참동안 들여다보았다.

가방속에는 하얀 분말 봉지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그중의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봉지를 뜯었다. 그리고 분말을 조금 꺼내 혀끝에 대보았다.

『이건 헤로인 아닌가?』

그가 고개를 번쩍 들고 물었다.

『네, 그래요.』

그녀는 어느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것만이 목숨을 건질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것도 헤로인인가?』

『네, 그래요. 저는 강제로 끌려가는거예요.』

『더러운년!』

일인이 이를 갈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모두 6킬로인가?』

『네, 그대로예요. 하나도 없애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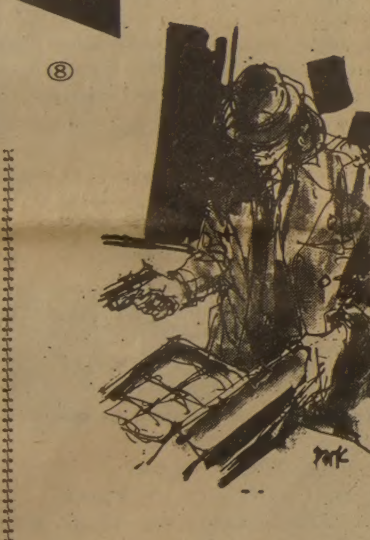
그는 자기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없게 되어있었다. 헤로인 6킬로 그램이 바로 눈 앞에 펼쳐져있지 않은가!

『영국인은 어디 있는가?』

『저는 몰라요. 이사람이 알아요.』

여자가 턱으로 일인을 가리켰다.

일인은 두손으로 허벅지를 누르고 있었다.



朴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화성초상화
☎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事情·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Angel Fine Art Studio

자녀들의 미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의 정서교육과 소질개발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였읍니다.

개강에 앞서 스튜디오를 오픈하오니, 관심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조혜미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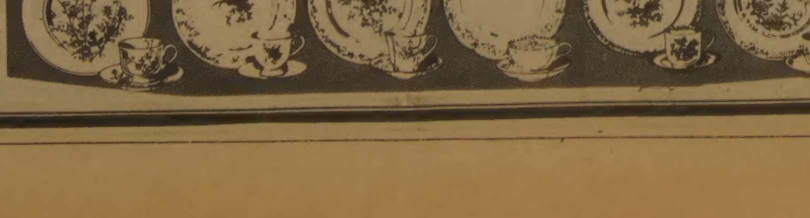
◇오픈리셉션
1983년 4월22일(금)
오후5시~9시

◇장소·
2428 Islington Ave.
(Elmhurst Plaza 2층)
Suite 7A

◇전화· 745-8236

□개강일시
4월30일(토) 매 토요일
오전10시부터 3시간씩

The Sol
… FINE GIFT STORE ..
세일기간 : 4월15(금)~30일(토)
품목 · ■각종 Noritake Dinner Ware
■Crystal 제품
■China ware
■Silver ware
■각종 대나무 가구및 일반제품
Noritake
1032 ST.CLAIR AVE. W.
(쎄인·클레어×Oakwood 서쪽)
☎656-4315 MRS. 최



〈집매매〉
타운하우스
(1) 2베드룸(영×스틸)
완전히 새로 장식. 지하실 완전 꾸밈.
(2)3베드룸 (베이뷰×존)
지하실 완전꾸밈. 학교. 쇼핑센타. 버스 2분거리.
냉장고. 오븐. 세탁기포함.
(3)4베드룸(베이뷰×Royal orchard)
새카펫, 부엌에 식당달림.
냉장고. 오븐. 세탁기. 디쉬·워셔포함.

※급매이오니 좋은 조건과 가격에 드릴 수 있읍니다.

Please call Mr. RON BATT
☎(B)886-2840
(R)221-5437
RE-MAX CENTRAL REALTY

◆아일랜드에서 본 토론토 다운타운. 현재 이 섬에는 경비행기를 위한 비행장이 있으며 페리호(Ferry)가 운행되고 있다.

……〈알아둡시다〉……

125년전 섬이된 토론토·아일랜드

원래는 반도… 강풍과 해일로 연결끊겨

오늘날의 토론토 아일랜드(Toronto Islands)는 지금부터 125년전까지만 해도 섬이 아니라 현재 토론토만(Bay)의 육지에 접해있는 반도였다.

토론토가 시로 승격되기 직전인 1834년 당시의 욕(York)시민들도 이 반도가 파도로 인해 침식되어 가는 것을 걱정했으며, 특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최적의 유원지로서의 꿈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보호책에 부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약25년동안 토론토당국은 별 뾰쪽한 대책없이 속수무책이었다.

1840-50년대에 토론토에 처음으로 철도가 건설되었을때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상업교통과 유원지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온 여름동안 채석선과 석탄을 나르는 범선, 여객을 나르는 증기선의 출입항으로 붐비었으며, 나이아가라, 킹스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용역을 담당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토론토의 경조클럽(Regatta Club)과 로얄·캐나디언 요트클럽에서도 심코가(Simcoe St.)의 호안에 그들의 배들을 정박시키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경조선들은 어부들로 부터 사교적인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매력과 호기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1854년까지도 이 지역는 피크닉공원이 있어 봄에는 상춘객을 끌었고, 여름에는 수영객과 뱃놀이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엠파이어 뉴스」는 "방문자들에게 오후의 한 때를 즐겁게 해주는 곳"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곳의 명물로는 존·퀸스(John Quinn's)씨가 구입한 퀸스반도호텔(Quinn's Peninsular Hotel)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유원지 경영으로 유명한 프라이벳브라더스(Privat Brothers)로 부터 이 호텔을 구입하여 반도정원(Peninsular Garden), 대형그네, 볼링코스, 동물원, 유람선서비스등을 갖춘 본격적인 유원지를 개발했었다.

이 지역이 봄과 여름철에는 붐비었으나, 겨울에는 황막했다.

그래도 죠지·더난씨 가족은 반도끝쪽에 있는 옛날의 등대를 지키고 있었고, 약간의 강심장인 어부들은 드문드문 통나무판자집에서 겨울을 나기도 했다.

퀸스반도호텔과 몇몇 여관주인들은 간간히 찾아오는 스케이터들과 강의 얼음을 깨고 올라오는 뱃사공들에게 불을 피어 제공하기도 했으며,

어떤경우는 강출기의 얼음을 깨기도 하여 배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1856년 겨울을 고비로 큰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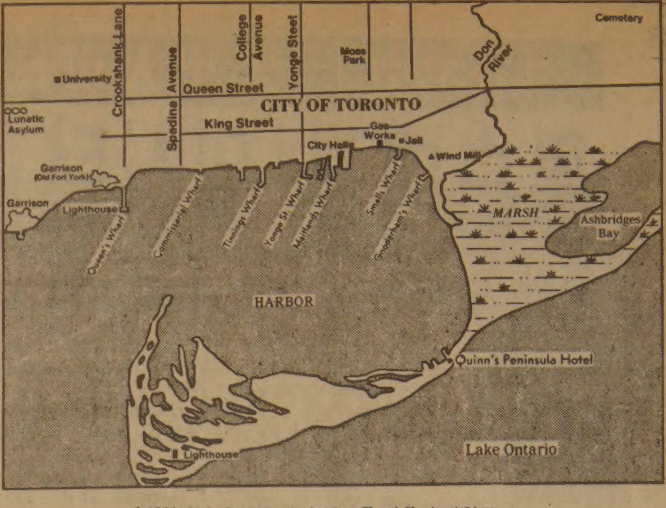
그 변화는 다름아닌 땅 지반에 조금씩 이상이 생기고, 물이 차츰 얕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문에 증기선이 지나가다 갯펄에 박히기도 했다.

1857년엔 강풍과 함께 퀸스호텔의 뒷켠일부가 씻겨 내려갔다.

57·68년 겨울에 퀸씨는 호텔개수공사를 시작하였으며, 4월13일 개수완공기념 파티를 거의 앞두고 다시 한번 비운의 폭풍이 불어 개수한 호텔의 일부분이 다시 파괴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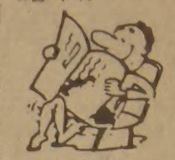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후까지 호텔을 지켰으나, 4월14일에 폭풍과 함께 닥친 파도에 호텔이 침몰하고 말았고, 동시에 퀸씨 부인도 익사했다.

이날과 함께 육지와 연결된 반도는 완전히 가라앉고 온타리오호수물이 덮혔으며, 5월30일에는 물이 더불어 2척의 범선도 다닐수 있도록 수심이 깊어지고 완전섬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1930년대 육지에 붙어 반도를 이루던 지형도.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연재소설〉

혼돈 ③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제1편 출 국

종이타는 냄새와 함께 사라진 내운명····

식사를 끝내고, 나는 느긋한 마음으로 남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따로 갈 곳은 없었으나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어둑어둑 저물어 남산이 우중충한 빛깔로 변해가고 있었다. 퇴계로 입구에 이를 때까지 적당히 갈 곳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아니면 육교를 건너 명동으로 나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우암 운명철학소】

간판을 보는 순간 나는 희한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같은 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새나라에서의 내 운명은 최소한 지금과 다르리라.

나는 간판에 그려진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이 갈라질 때마다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찾아가기는 쉬웠다.

길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맞은편의 간판에 광고된 하늘색의 철대문이 있고, 「우암운명철학소」라는 간판이 대문기둥에 길게 붙어있었다. 나는 어색한 태도로 다가가 초인종의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대문에 부착된 인터폰에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는 갑자기 대답에 궁했다.

"신수를 보러 오셨읍니까?"

"네 —"

"들어오세요."

철거덕 철대문이 열렸다.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벌써 마루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오십대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안내하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문에서 마주 보이는 벽에는 「전화위복」이라는 한문족자가 걸려있고, 방바닥에는 두꺼운 방석과 책상이 놓여있었다.

"거기 앉으세요."

남자를 따라 나도 방석위에 앉았다.

"성명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는 흰종이를 꺼내며 엄숙하게 물었다.

"김애자, 1960년2월3일."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난 시를 알고 계십니까?"

"저녁 6시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무엇인가를 종이위에 끄적거렸다.

당신은 어두운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찬란한 불빛이 당신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물을 건너게 됩니다. 외로운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의인을 만날 것입니다. 주역으로 보면 당신은 귀매의 패입니다.

주역에는 음, 양과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이 조합을 이루는 예순여섯개의 패중에서 네개의 패가 남녀관계의 패입니다. 함, 항, 점, 귀매가 그것입니다. 귀매는 가장 불길한 패입니다. 당신은 이미 나이먹은 남자에게 처녀를 잃었을지 모릅니다. 결혼을 서두르면 소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물을 건너 돈을 벌어도 한꺼번에 몽땅 털릴 것입니다. 매사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종이를 접어 성냥불에. 태웠다. 종이 타는 냄새와 함께 내 운명이 연기로 사라졌다.

나는 맥이 풀렸다. 한동안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그를 바라다 보고 있었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읍니다. 전화위복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우주의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천지와 지위가 같아지고, 천지와 동등한 지위에 선 인간은 우주의 법칙을 습득함으로써 삼라만상의 변화속에서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갈 수 있읍니다. 불을 밝히고 밤길을 걷는 사람과, 무턱대고 걷는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앞날을 환히 알고 있으니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성함까지 바꾸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2만5천원입니다. 개명을 원하시면 3만원에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나는 이만오천원을 핸드백에서 꺼내 그의 책상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건 거짓이다. 순 사기다. 자기가 무언데 남의 운명을 안단말인가? 몇마디 알아맞춘 것은 절대 우연이다"

중얼거리며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이제까지 신나던 기분이 확 잡쳐버려 기운이 없었다.

"당신은 드디어 어둠속에서 광명을 찾았읍니다. 소원이던 물을 건너니 신천지 허허 벌판이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더 볼 것도 없이 만사가 형통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패를 바라며,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내가 남의 소실로 들어가다니, 법적으로는 분명히 아직 처녀인데 소실이라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돈을 벌어 한꺼번에 몽땅 털리다니, 이건 또 무슨 심뽀냐?)

나는 오던 길을 뒤 돌아서 혀를 날름거리고 "영감, 엿이나 잡수쇼" 하며 주먹욕을 먹였다.

김이새서 생맥주라도 한잔 마시고 기분을 풀어야 할 것 같았다.

(계속)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dying for a coke.

어떤말들은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이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

「콜라가 마시고 싶어 죽겠다」「당신이 보고 싶어 죽겠다」「골치가 아파 죽겠다」이같이 죽겠다는 표현은 우리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한다.

「콜라가 마시고 싶어 죽겠다」는 I'm dying for a coke.라고 하고 「당신이 보고 싶어죽겠다」는 I m dying to see you.「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My head is killing me. 이같이 표현하고 있다.

콜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느분이 이민길에 비행기 안에서 시원한 콜라 한잔을 마시려고 스튜어디스에게 「콜라」라고 했더니 알아듣지 못하여 결국은 「워터」라고 말하여 맹물만 마셨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는 미국인들에게 말할때는 coke(코욱)이같이 해야 알아 듣지 콜라라고 하면 못알아듣기 십상이다.

Kill은 본래 「죽이다」의 뜻이나 kill time은 「시간을 할일없이 무료하게 보내다」의 뜻으로서 I'm just killing time.하면 「할일없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는 이야기이다. I have twenty minutes to kill.이란 예를 들어 극장 같은 곳에 갔을 때 상영 시간이 20분 남은 경우 「20분 동안이나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뜻이다.

A:Shall we pull over and get something to drink?
B:Yes. Let's do that.I'm dying for a coke.
A:Okay. Here we are. Do you want anything else?
B:Well, I guess we might as well eat while we're here.
A:You're right. I'm going to get a hamburger. How about you?
B:A hamburger and a large coke. That's all.
A:차를 한 곳에 세우고 뭘 좀 마실까요?
B:네, 그렇게해요. 콜라가 마시고 싶어 죽겠어요.
A:좋습니다. 다 왔군요. 콜라말고 뭐또 다른 것이 필요하세요?
B:기왕 여기 온김에 식사를 하는 편이 낫겠어요.
A:맞아요. 난 햄버거를 먹겠읍니다. 무엇을 드시겠읍니까?
B:햄버거와 콜라를 큰것으로 하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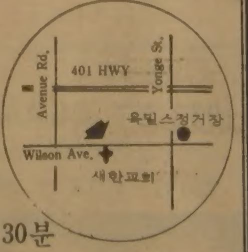
*pull over:차를 한쪽으로 세우다.
*might as well :하는 것이 좋다. You might as well begin.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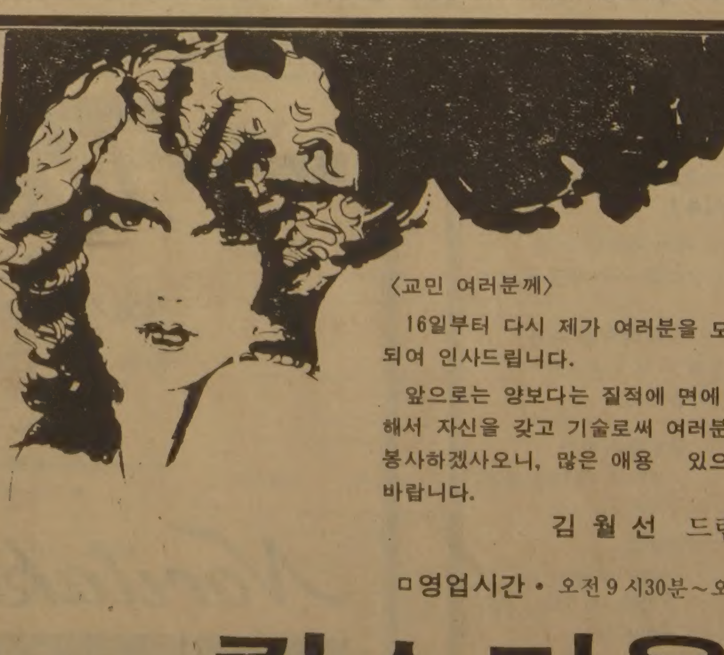
사형수로 옥중15년 복음전파사명 받은 원충연 집사 간증!!

이줄을잡아라
전도간증집회

일본 중앙대학 법과졸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
서울 문리대 정치학 강사
미국 보병학교 졸
미국 참모대학 졸
육본 정훈감실 차감
서독대사관 무관
국가재건최고회 공보실장
15년간 사형수로 옥중생활
"이줄을 잡아라"저서
현 승동교회 집사



■때 : 4월22일(금)~24일(주일)밤7시30분
■곳 :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문의전화 :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교민 여러분께〉

16일부터 다시 제가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에 면에 치중해서 자신을 갖고 기술로써 여러분께 봉사하겠사오니, 많은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 월 선 드림

ㅁ영업시간 • 오전 9 시30분~오후 8 시30분

킴스미용실

668 MANNING AVE.(코리아하우스 뒤) ☎532-7094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모국연예인 초청 쇼

□일자 : 5월13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교
CONVOCATION HALL
(칼리지×세인트·죠지 Kings College Circle)
콘보케이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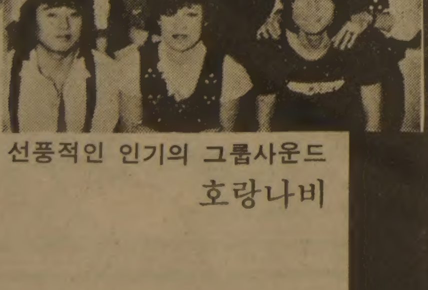
A석 $12 / B석 $10 / C석 $8

한국 최고의 코메디안
"무언가를 보여 주겠읍니다."
"못 생겨서 미안합니다" 이주일

그래머 가수
"네가 좋아"
이은하

이 용

"진정인가요?"
메들리의 여왕
김연자



선풍적인 인기의 그룹사운드
호랑나비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

한국일보
우리의建設은健全한新聞

韓半島「核우산」지원

韓·美안보協 연합군 사령부 作戰지침등 마련

尹국방, 내일 레이건에 全대통령 親書전달

【워싱턴=申鉉鈺기자】제15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에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尹誠敏국방장관은 14일 하오 4시30분 (한국시간 15일상오6시30분) 백악관으로 레이건 美대통령을 예방 한다.

尹장관은 이자리에서 全斗煥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눈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하오 (한국시간) 워싱턴의 포트맥네어에서 韓美군사위원회 (MCM) 와함께 사실상 막이오른 이번 韓美연례안보협의회는 오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된다.

이날 金潤鎬합참의장과 존·베시 美합참의장의 공동주재로 열린 韓美군사위원회에서는 ▲韓美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침을 마련하고 ▲유사시 核우산에의한 한반도안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지원▲조기경보체제및 한국군 전력증강지원문제등을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對韓군사판매차관 (FMS) 상환조건 개선 ▲유사시 증원군장비 사전비축▲한국방위산업제품의 대외수출확대 ▲군사기술협력과 군수지원체제강화문제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適格업종例示制서 禁止制로

外資도입방식 轉換

외국인 投資支援制도 개편

租稅감면등 特惠철폐

정부는 부진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유치하기위해 외자도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현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팀(적격업종예시제)에서 네거티브·리스트방식 (금지업종예시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포지티브방식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적격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적격업종으로 열거되지않은 업종은 외자도입허가를 해주지않는 제도인데 대해 네거티브방식은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한 금지업종을 먼저예시하고 금지업종으로 명시되지않은 업종은 모두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제도로서 이제도의 시행은 외자도입절차의 자유화 조처의 예비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일 재무부가 마련, 농수산부, 상공부, 보사부, 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에있는 외자도입제도 개편방안은 또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함과 아울러 외국인투자에대한 지원제도를 대폭개편, 소수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조세감면제도등 지원제도를 철폐, 국내기업과 같은조건으로 경쟁할수있도록 경쟁조건을 균일화할방침이다. 이와아울러 외국인투자비율도 상향조정, 50%이상투자가 가능한 업종을 대폭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부처의 협의가끝나는대로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지원제도개편은 외자도입법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인가지침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중 8백55개업종(세세분류기준)중 5백21개업종이 외국인투자적격업종으로 분류되어있고 따라서 나머지 3백34개업종이 투자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있다. 또 외자도입법에따라 조세감면혜택을 받고있는것은 5백21개적격업종중 3백40개업종이고 나머지 1백80여개업종은 특혜를 받지않고있으며 60개업종은 50%이상 단독투자가 허용되고있다.

그런데 외자도입정책이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리스트방식으로 바꿔지면 철도·전화·상수도등 공공서비스부문과 부동산투자업·광산업·발전업등 1백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업종에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60년대후반 수입자유화를 촉진시키기위해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을 시도한바있다.

土地 부정재매입 업체

철저히 稅務조사

安 국세청장

安武赫국세청장은 13일 9·27조치에따라 이미 처분됐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土開公으로부터 재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기업에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권을 발동, 법인세등은 물론 상속·증여세의 탈세여부를 엄중히 가려낼것이라고 말했다.

安청장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위해 정부가 취한 9·27조치를 위배한기업은 사회정의의차원에서 댓가를 치러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미토지재매입부정사건에 관련, 대표자가 입건된 韓一合纖등4개기업에 대한 1차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앞으로 부정재매입사실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감사원등 관계기관과 토지를부정재매입한 기업에대한 합동조사를 계속실시키로하고 일제신고 기간중 재매입사실을 자진신고 해오는 기업가운데서도 사안에따라 세무조사대상업체를 가려내 탈세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韓一合纖등 4개기업의 기업주·가족등에대한 증여세과세자료를 검찰에서 통보받는대로 이에대한 정밀조사를 병행해서 실시, 포탈증여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 비업무용토지를 재매입한 기업이 신고를 이행하지않을경우 사안의경중을 가리지않고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등의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蘇、南北교차承認 반대

카피차副外相밝혀

【東京=宋孝彬특파원】訪日중인 미하일·카피차 소련부외상은 12일 제3회 日蘇실무자회의에서 한국문제에 언급,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계속추진중이며 앞으로 남한을 승인하지 않을것이고 南北韓 교차승인에 응하지않을것』이라고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작년에 있은 소련의 고위관리와 중견언론인들의 잇따른 訪韓에 대해『소련국민들이 남한땅을 밟은것은 남한의 초청객으로서가 아니라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혀 소련의對한반도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일본언론들은 작년10월 타스통신 前東京지국장등 중견언론인과 소련문화성의 디프포프·미술문화재 보존국장이 회의참석을 위해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자, 일본 소련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한 새로운 宥和조치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낳은바있다.

카피차부외상의 이같은 對韓발언은 소련의 중거리核미사일 SS 20의 극동배치등 전반적인 국제정세가 日蘇양국간에 논의되던가운데 나왔다고 이회의에 참석한 일본외무성의 고위관리가 전했다.

카피차부외상의 이날 발언은 소련의 對한반도정책에변화가 있을것이라는 일부관측이 빗나갔음을 말해주는한편 소련측이 한국에대해 지녀온 종래의 냉담한태도가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확인해준것으로 평가된다.

카피차부외상은 『한반도정세는 긴박하긴하지만 폭발양상까지는 띠고있지않다』고전제한다음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주둔과 한미합동기동군사훈련이 한반도정세를 위태롭게하는 요인이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외무성 소식통은 소련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언급한데대해 이는 양국관계가 원만치 못함을 시사하는것이며 중공의 북한접근을 의식한 발언이라 분석했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카피차 부외상이 행한 일련의 對韓발언에 대해 이는 소련이 북한의 의사를 대변하고있는 것이며 지난1월에 열린 韓日정상회담이래 한국의 주도로 다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南北교차승인 및 한반도긴장완화에대해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논평했다.

異見해소 失敗

日·蘇實務者級회담

【東京聯合】지난79년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양국관계가 냉각된이래 日蘇양국은 12일 처음으로 제1차 실무자급회담을 가졌으나 核무기와 아시아문제에관해 양국간의 異見을좁히지는 못했다고 일본관리들이 전했다.

◇全대통령이 忠北道廳순시도중 道內 各界인사들을 접견하고있다。

"無戶籍者 파악하라"

全대통령、충북道 순시

【淸州=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3일 戶籍이 없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任成幸忠北知事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戶籍이 없는 주민이 있다면 安保的 측면에서 볼때도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忠北은 山水가 좋고 문화遺蹟이 많이있는 등 여건이좋아 모두가 노력하면 가장 모범이되는 道가 될수있다』고 말하고『忠北이 선진조국을 창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충북을 觀光地로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 『관광지가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이 정직하고 친절한 자세를 갖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교육문제에 언급, 『우리나라는 南北이 對峙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思想교육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모든국민들이 主人精神을 가질때 무슨일이든지 극복해 나갈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주인정신을갖도록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忠北道는 道民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해주도록 노력하고 농·어촌후계자에대해서는 계속해서 事後관리를 잘해 실패하지않도록 하고 실패하더라도 再起할수있도록 지원해 주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零細民지원과 관련, 『영세민을 年次的으로 없애는방안을강구해 못사는것이 世襲化되지 않도록 자립정신을 키워나가도록 하라』고 말했다.

유아원개원식 참석

【聞慶=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3일하오 忠北道政보고를 들은뒤 귀경길에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慶北聞慶의 大成새마을 유아원 개원식에 참석하고 聞慶군청에들러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종사를 격려도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淸州에서 聞慶으로가는도중 공군○○기지에 들러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어제 13개常委長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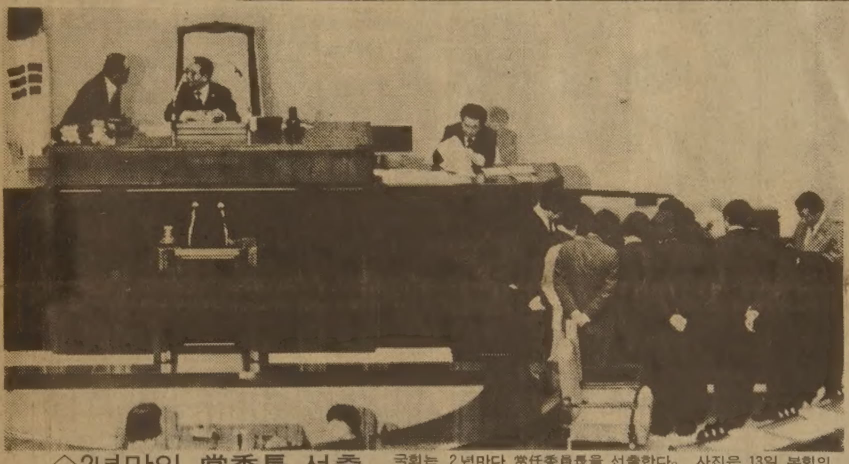
오늘 3黨代表연설

국회는 13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13개 常任委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잇달아열고 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 民韓黨의 柳致松총재, 국민당의 李鍾贊부총재로부터 각당의 대표연설을 들은뒤 15일부터는 본회의 對政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는 民正黨에서 내정한 각常委長후보를 모두 그대로 선출했는데 이날선출된 常委長과 득표수(在席2백71명)는 다음과같다.

▲운영=李鍾贊2백56▲법사=韓炳宋 2백30 ▲외무=奉斗玩 1백99 ▲내무=權正達 2백38 ▲재무=鄭在哲 2백46▲경과=柳瓊賢 2백38 ▲국방=金永先 2백42 ▲문공=李海元 2백45 ▲농수산=金湜 2백32 ▲상공=裵命國 2백44▲보사=李贊赫 2백35 ▲교체=鄭東星 2백45 ▲건설=朴權欽2백38



◇2년만의 常委長 선출 국회는 2년마다 常任委員長을 선출한다。 사진은 13일 본회의에서 11代국회後半2년동안 13개常委운영을 이끌어갈 위원장투표를 끝낸뒤 開票작업을 하고있는모습。

타이·베트남軍 무력충돌 재발

【방콕AP=聯】베트남군의 타이국경 월경침공14일째인 13일상오 타이군과 베트남군간에 무력충돌이 재발됐다.

양국군의 무력충돌은 타이영내 동남단 1㎞지점인 트라트省의 크롱 야이지역에서 발생, 1명의 타이국경순찰대원이 부상했다고 국경순찰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전투가 이날 일출직후부터 양국군의 박격포공격으로 개시돼 2시간동안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서방군사소식통은 베트남군의 이번 공격이 反헹·삼린 캄보디아게릴라들에 대한 건기대공세의 주요 목표지점으로 보이는 타이북방 1백50㎞지점의 反베트남 게릴라들을 제거하려는 술책 전략요충지로부터 캄보디아 일는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李雄平대위에 훈장

국무회의는 13일 北傀미그機를 몰고 귀순한 李雄平대위에게 保國훈장天授章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李씨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점을 높이사 훈장을 주기로 했다.

社會漫評

異色 데모

地平線

1919년은 아시아에서 매우 뜻깊은 해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일본의 침략과 제국주의에 항해 중국의 5·4운동이 터졌었다. 이해 4월말 마하트마·간디는 그의 유명한 비폭력·비협력운동을 본격화 시켜 투쟁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영국을 상대로 싸운 정신적 투쟁은 현대의 온인류가 걸어가야할 고귀한길을 조명탄처럼 밝혀주었다.▼마하트마 즉 聖者란 이름은 인도의 詩聖인 타고르가 붙여준 것으로 전해 진다.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는 우주의 생명과 같이한 사람이라고 그에 대한 인도인의 신뢰와 존경을 표현했다. 막상 간디 자신은 이 존칭을 몹시 꺼려 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는 정신의 열렬한 지도자이자 강인한 행동가였다. 현실적인 이상주의자 사상가 처칠은 「거지聖者」라고까지 비꼬았다. 그러나 석가 이래로 인도인의 마음을 지배한것은 간디 말고는 없다.▼간디에게는 후일 스스로 고백했듯 「일생에 있어 가장 창조적인 경험」을 가진 순간이 있었다. 인종차별이 심한 南阿연방에서 그가 인도인상사의 법률고문으로 일할때였다. 일등車를 타고 지방여행을 떠났는데 영국인 차장이 유색인종인 인도인이라고 발길로 내쫓았다. 이런 수모와 백인치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포의 비극을 보면서 위대한 마하트마 정신이 탄생했다.▼간디는 독립운동가이자 행동하는 진리를 터득한 종교인이기도 하다. 자서전을 통해 정직과 진리에대한 신념을 이렇게 밝혔다. 「나는 절대적 진리를깨닫지못해 상대적 진리를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 이길이 좁고 험악하며 날카롭지만 내겐 가장 가깝고 쉬운 길이다」. 그는 동족의 흉탄에 쓰러지면서도 용서하라는 한마디를 남겼다.▼올해 아카데미상 작품상등의 영광은 영화「간디」에게 돌아갔다. 「E·T」마저 간디에 밀려 세계적인 선풍을 몰고온 것이다. 이 영화가 일깨워 주는 간디정신을 다시 새겨 보게 된다. 폭력과 전쟁의 세계를 평화와 진리, 善으로 이끌어 가려는 지구인의 소망은 더욱 높아져 간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非暴力이어야 한다.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회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BROADWAY
FRUIT MARKET
—도매상—
화초를 취급하시는 분께는 오는 어머니 날(5월8일)이 일년중 가장 바쁜 날입니다.
현재 저희 도매상에서는 미리주문을 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양대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느 곳보다 저렴한 가격
(온타리오 FOOD마켙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437 CARLAW AVE.
☎ : 465-8167
MR. 곽 MR. 김
★주문배달 ★품질보장
곳곳에서 주문이 너무 많아 일일이 전부 소화를 못하여, 앞으로는 주문량과 지역에 따라 무료배달은 하지 않사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 성·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영업시간 : 월~목/오후 2시~새벽 1시
금~토/오후 2시~새벽 2시
일 /오후 2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HoneyHome
BakeShop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美、蘇에 核戰방지 새提案

와인버거國防 팩시밀리설치등 4개項

“우발적 核戰가능 높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미국은 膜例에 의한 우발적인 핵전쟁을 막기위해 이미 美·蘇간에 설치된 직통전화(하트·라인) 외에 초고속 팩시밀리·트랜스미터를 새로 설치하고 美·蘇간에 공동군사통신연계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핵무기사용통제및 제어를 위한 제안을 소련측에 제시했다.

캐스파·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13일0시(한국시간) 의회에 제출한 한보고서를통해 미국은 우발적인핵전쟁의 발발을 막기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연구해왔다고 밝히고 美·蘇양국정부는 상대방국가에 주재하는 양국대사관을 통한 고급정보자료의 연계체제수립과 핵전쟁위협이 있을때 양국우발물과의 협의체제를 수립하자고 아울러 소련에 제안했다.

와인버거장관의 이같은 제안은 美·蘇간의 핵전쟁이 의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실수및 膜例등에의한 우발적인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있다.

현재 美·蘇간에는 백악관과 크렘린궁을잇는 하트·라인이 설치되어있으나 이는 청각을통한 실수의 확인만이 가능한편이어서 시각확인도 가능한 고속도 팩시밀리송신체제가 병설될경우 우발적인핵전쟁예방에 큰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을잇는 외에 양국의 군사지휘센터도 있게될 이 팩시밀리 송신체제를통해 각종 자료와 도면 및 도해의 신속한 교환이 가능해진다.

레이건대통령은 이제안이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려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한다고밝히고 앞으로 수주일안에 이 제안을 충분히 검토할것을 약속했다.

◇포클랜드戰 「敗將대통령」의 검거 포클랜드전쟁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前아르헨티나대통령 레오폴도·갈티에리장군이 포클랜드전쟁당시 아르헨티나軍 전선지휘관들의 임무태만을 공개비난한후 크리스티노·니콜라데스 現육군사령관으로부터 60일간의구금명령을 받고붙잡혀가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13日AP聯=聯】

越、캄反軍기지 육박

반상게등 2곳… 難民대량발생 우려

【아라냐프라텟(타이)AP·UPI=聯】 탱크와 야포의 지원을받고있는 대규모 캄보디아주둔 베트남軍 부대들이 2개 캄보디아저항군 기지쪽으로 진지를 이동, 약10만명의 민간인들과, 크메르人民민족해방전선(KPNLF)게릴라들을위협하고 있다고 타이군사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타이·캄보디아접경지대를 감시하고 있는 이 소식통들은 베트남軍이 현재 약2만3천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있는 KPNLF의 주요 캄보디아 난민캠프와 약7만7천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있는 농사메트를 쉽사리 공격할수 있는 거리안에 육박해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언제 공격을 개시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타이軍장교들은 3개 캄보디아저항세력중 非共産系세력의 하나인 KPNLF의병력 대부분이 2개기지에 거점을 마련하고있다고 말하고 KPNLF의 지도자인 손·산前수상은 최근수일간 고위지휘관들과 방어계획과 민간인 철수방안을 숙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공격으로 새로운 난민들이 타이領內로 몰려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여, 새로운 피난처를 미리 준비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交戰중인 이란·이라크

中共서 戰爆機 구매

【워싱턴AFP=聯】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있는 이란·이라크 두나라는 모두소련이 설계한 중공제 전투폭격기를 구매하고있다고 미국의 항공우주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크 앤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최근호에서 밝혔다.

이 잡지는 중공기술자들이 이집트와 요르단공군 기지에서 중공제 F7(미그21) F6(미그19)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으며 이중 F6전투기는 이라크로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비에이션·위크는 또 이집트 요르단은 이라크공군에 기금지원을하고있으며 13명의 이집트인이 이라크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있는데 이집트 조종사들은 때때로 이란에 대한 공중정찰비행까지 도 하고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란의경우 북한으로부터 F6전투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중공은 조만간 이란과 F6기를 북한을거치지않고 이란에 직접 인도하는 계약을 맺을것이라고 이잡지는 밝혔다.

IPU서울總會 저지工作

北傀、阿洲國의원등 매수企圖

【제네바=聯】 핀란드의 유력 시사주간지 수오멘·쿠발레티지는 최근호에서 북괴의 교관들이 IPU(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개최를 저지하기위해 핀란드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매수공작을 펴고있다고폭로했다.

수오멘·쿠발레티지의야코·오케르편집부국장은 동지 3월25일자에서 북괴가 핀란드로부터 수입한 제지공장 플랜트의 대금도 치르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외교관들이 면세주류밀수를 하는 주제에 IPU 로마총회에서결정한 차기총회의 서울개최결정을 뒤엎기위해 각국 의회 의원들에대해 매수공작을 펴고있으며 핀란드의경우 적어도 4명이상의 의원에게 5천달러씩의 뇌물을주려다가 거부당했다고 폭로했다.

外信안테나

시카고에서 최초로 黑人市長 탄생

해롤드·워싱턴의원이 過半 획득

【시카고AP·UPI=聯】 12일의 시카고시장선거결과 민주당출신의 해롤드·워싱턴의원이 당선돼 시카고에서 최초로 흑인시장이 탄생됐다.

흑백대결로 주목을 끌었던 이번 선거에서 워싱턴의원이 공화당의버나드·엡턴후보를 물리치고 유효투표수의51·5%를획득, 시장에당선됐다.

한편 선거관계관리들은 이번 시장선거에 1백60만유권자중 88%가 투표, 시카고시장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西獨수상 내일訪美

軍備문제등 協議

【워싱턴AP=聯】 헬무트·콜 서독수상은 14일 워싱턴을방문, 레이건美대통령을 비롯하여 美지도자들과만나 경제문제와 군비통제관계 현안들을 협의한다.

지난해 10월 수상에 취임한이래 두번째로 워싱턴을방문하는 콜수상은 오는5월하순 美버지니아州 윌리엄즈버그에서 개최될 서방선진7개국 연례경제정상회담에 참석할 7개국정상가운데 첫번째로 회담개최전에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갖는다.

아랍圈, 25일 모로코서 頂上회담

레이건、새 中東평화구상 밝힐듯

【마나마=聯】 아랍권은 오는25일 모로코에서 中東평화협상문제를 다루기위해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며 레이건美대통령은 이에 앞서 새로운 중동평화구상을 밝힐것으로보인다고 바레인의 걸프통신(ONA)이 1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어느 모로코발 기사에서 아랍권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새로운 레이건대통령의 중동평화안은 지난해9월 발표했던 내용과는 달리 아랍·이스라엘간의 평화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을수있는 실질적인절차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사우디개발 지연

油價하락 추세로

【런던=聯】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발계획이 유가하락에 따른 收入감소에 대처하기위해 당초예정보다 더 연장되고있다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사우디의 한 주간지가 12일 보도했다.

제3세계 「南方은행」 創設 검토

開途國 긴급차관 제공이 主업무

【홍콩=聯】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오는5월 유고슬라비아에서 회담을갖고 개도국들에 대한 「긴급차관」 제공을 주요업무로하는 「남방은행」의 창설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홍콩의 일간지들이 보도했다.

이신문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北京에서 열린 『南-南회담』에 참석한 후 홍콩을 방문한 『제3세계 기금』의 사무장들의 말을 인용, 이은행의 창설문제는 거론됐으나 공식토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女優아들과 딸의 결혼 ◎캐롤라인양(오른쪽)과 로셀리니氏

海外토픽

日에 「걸어다니는 銀行」 출현

★고객 가정電話에 컴퓨터 연결

일본의 은행고객들은 「걸어다니는 은행」의 출현으로 직접 은행에 가지않고도 현금의 입출금이 가능하게 됐다고.

일본대장성의 허락을 받은 日本은행들이 전과정의 컴퓨터화를 서두름에따라 서비스분야는 확대될것으로 보인다고. 【東京】

이제도는 은행원들이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다니면서 고객의 가정과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업무처리를 가능케한다는 것.

초기단계에서는 우선입금·출금이 가능한데 각은행은 당분간 30대이하의 휴대용컴퓨터를 보유할수 있으나 [illegible]

캐롤라인공주 再婚

★9월에 버그만의 아들과

【뉴욕AP=聯】 모나코의 캐롤라인공주(26)가 오는 9월 금세기의 대스타였던 잉그리드·버그만의 아들로 베르티노·롯셀리니(34)와 재혼한다고. (사진)

뉴욕·데일리·뉴스와 뉴욕·포스트등 2개 신문이 보도한바에 따르면 정확한 결혼일자는 앞으로 캐롤라인공주의 아버지인 레이니에공이 발표할 예정이라는것.

人事異動

◇副理事官級 ▲內務部 [illegible]

◇書記官級 ▲내무부행정과장 [illegible]

◇民正黨 [illegible]

◇本社來訪

▲梁俊模씨(한국新聞倫理委위원장) ▲町田貢씨(駐韓日本大使館政治部參事官)신임 (13日字)

社說

大田의 새開發구상

—人口·機能분산위해 必要性 크다

韓國일로의 서울人口疏散을 위한 지방據點都市의 개발문제는 오래고도 새로운 지속적 과제로 남아있다.

때마침 全斗煥대통령은 12일 금년도 忠南道政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大田市를 서울로 올라오려고하는 사람들을 흡수할 수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여러 시설을 늘리는 한편 교육기관도 유치하며 각종 회의도 大田에서 열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한것이다.

같은날 民韓黨은 「지방行政구역및 體系改革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강조하는 가운데 大田市도 직할시로 승격시킬 당위성을 力說했다한다.

우리는 이같은 일련의 前向的이고 구체적인 과제의식에 적극 찬동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大田은 韓國(南韓)의 內陸交通 요충인데다가 首都圈 人口疏散을 감안할적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다. 또 그周邊에는 아름다운 風光속에 우리 겨레의 긍지를 담은 숱한 名勝·史蹟地가 산재해 있으며 地形·地勢도 무한한 開發가능성을 헤아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고장이 우선 교육도시, 田園도시, 관광도시로서 秀麗하게 가꾸어지길 바란다.

하나 각지방의 上京人口를 大田에다 흡수키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유치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다. 현재 서울에 집중된 여러 기능의 이양, 분산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현대사회의 産業化과정에 어울리도록 다수인구를 흡인할수있는 據點工業都市로서 탈바꿈하거나 최소한 그 주변에 工業團地건설의 新面貌를 갖출수 있어야 할것으로 믿어진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오늘의 제조업은 都市型工業과 臨海型工業으로 분류된다. 기계·금속·가구·섬유·皮革·出版등이 前者에 들고, 다른한편 제철·造船·木材가공등은 後者의 것이라고 알려져있다. 그리고 都市型工業은 內陸지방에 건설이가능한동시에 勞動集約産業이므로 人口흡수력이 강하다. 大田을 중심으로한 忠南道開發에서 특히 유의할 바라고 생각된다.

어차피 首都圈人口의 地方分散은 據點工業 都市건설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大田圈뿐만아니라 全州圈·光州圈·大邱圈·昌原 馬山圈 그리고 앞으로는 光陽및 順天圈등의 균형있는 개발을 염두에두어야 할것이다.

지방據點都市의 개발과 주변의 농촌연관산업 육성은 서울과 釜山을 향한 人口集中을 완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國富를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産業·行政기능의 활성화를 보장할수 있다. 활기있는 大田市의 再開發사업도 결국은 전국적 視野에서 按配되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國家安保的 관점에서도 긍정적 의의는 클것으로여겨진다.

附言하면 大田圈개발에 부수되기 쉬운 不動産投機바람 억제책도 뒤늦지않게 신중히 마련돼야 하겠다. 土地의 形質변경에 계획적인 통제가 가해져야 할것이고 不動産거래에 대한 政策的 限界設定도 분명해야 할것이다.

지금껏 首都 서울은 韓國人口의 4분의1을 옹유하는 처지에서 계속비대화를면치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 온갖 中樞神經의 집결처로 되어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教育·文化등 기능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많은 求心點이 地方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이같은 時代的要請을 배경으로 大田市의 새로운 개발이 쇄目 期待되는 바이다.

健康식품 그 虛와實

—補藥萬能사상부터 再吟味 돼야

屠門大嚼—하면 洪吉童傳의 작가 許筠이 쓴 食品책 이름이다. 푸줏간 앞을 지날때 크게 입맛을 다신다는 뜻에서 屠門大嚼이란 말을 썼다. 한데 요즘 서울거리를 다녀보면 별의별 식품광고에 놀라게된다.

그 이름도 그럴싸하게 健康食品, 어떤것은 자연식임을 내세우는가하면 精力, 強壯, 심지어 萬病通治를 선전하기까지 한다. 이런 補身식품의 異常과열속에 허위·과대선전이 끼어 그야말로 몬도가네현상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검찰의 일제단속을 받게된 外製「健康식품」 업자들의 경우만 봐도 원산지인 외국에서 조차 뚜렷한 약효를 인정받지 못한채 인기가 시든 알로에 벌라겔등을 과대·허위선전하는따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드러나있는 모양이다.

또 저렴이를 원료로 만든 龍精을 해열·이뇨·피부병치료에 효력이 있다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업자들도 구속되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오는데 그수입액은 35만달러, 벌21만달러에 이른다고하니 외화유출면에서도 걱정을 안할수없다.

그밖에 시중에서는 개소주, 흑염소탕, 굼벵이탕, 개구리탕, 뱀탕이 날개를 치듯 팔리고있다. 또 노루의피나 胎盤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해저1천m의 심해에 사는 낙지와 상어 간에서 추출했다는 스쿠알렌도 나돌고있는판이다.

이러다가는 개구리, 메뚜기, 굼벵이의 남획으로 자연의생태계가 파괴될 위험마저 있는것이다. 현미·율무 효소·케일·크로렐라·화분등 일부자연식품도 이번단속의대상이 되었으나 그식품 자체보다는 약효의 과잉선전문구에 문제가 있는것같다. 무공해 자연식품의 붐을 타고 생수를 사먹는등까지있지만 그가격이 너무 비싸고 효능을 과장시킨점을 빼면 자연식품 그자체를 나무랄 필요는 없을것같다.

한때 법석대던 메추리, 코카사스가 원산이라는 칼프리, 홍차버섯, 케일綠汁등의 선전은 요즘엔 잠잠해 졌다.

不老長生은 누구나가 바라는바다. 하나 있지도않은 不老草를 그리는 補藥과 強精劑 만능사상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라 하여 과언은 아닐성싶다.

어떤음식이건 가리지않고 어느정도 고루 잘먹으면 우리몸의 건강은 유지된다. 大食보다 小食이 건강에좋고 의약품과 소위건강식품에집착하는 사람보다 시골에서 고추나 마늘, 배추, 된장국만 먹고도 건강한 사람을 얼마든지 볼수있다.

藥療는 食療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또 食餌療法, 食餌療法하지만 적정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마음의평안이 그에 못지않게 중하다. 억만금의 不老草보다 낫다고 할수있다.

인삼의 나라인데다 녹용복용자 70%를 한국사람이 먹는다고 한다. 어떻게보면 너무 잘먹어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許筠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숙(苜蓿)을 3백년전에 이미 건강식품으로 지적한바있다. 우리땅에서나는 자연식을 時食에 맞춰 고루 섭취하면 건강에 탈이없을것을 비싼달러를 들여가며 들여온 거짓 萬病通治藥에 속아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향마저 없지않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번 허위健康식품 일제단속을 계기로 건강식에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것같다.

政局往來

◆先進國되면 北韓 對話에응할것

全斗煥대통령은 13일낮 忠北道政계획을 보고받은후 各界인사 8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는자리에서 『선진조국창조와南北통일은 기필코 우리世代에서 달성해야한다』며 『국민모두가 主人정신을 갖고 땀흘려 일하는것만이 이를 달성할수있는 길』이라고역설.

全대통령은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좀더 함양하고 오는 86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천달러만 달성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수있다』고 말하고 과거의 日本과 싱가포르의 例를 들면서 『2천달러를 넘기기가어렵지 일단 그고비만넘어서게되면 中産層이 크게 늘어나 사회가 안정되고 3천달러, 5천달러 高地도 쉽게 오를수 있다』고 展望.

全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이되면 北韓이 南北대화에 응하지 않을수 없을뿐 더러 우리에게 경제협력이나 기술협력을 요청하게 될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위치도 北韓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格上될것이므로 우리민족의 숙원인 南北통일도 앞당겨 이룩할수있다』면서 『통일이되면 지금보다도 훨씬더 잘살수있는 여건이 될것이니 우리세대에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수있도록 다같이 매진하자』고당부. 【清州=尹國炳기자】

◆呼名줄서기등이 黨內민주주의냐

13일상오 民正黨 사무처 室局長級및 各種위원회 부위원장급 당직자 27명에 대한 任命狀수여식에서 일부의원들이 지나치게 權威的(?)인 수여식절차에 불만을 표시하여 한때 소란극을 연출.

黨사무처는 대부분이 국회의원인 이들을 式시작시간보다 30분빠른 상오9시30분까지 중앙당사에모이라고연락, 제시간에 도착해 한참동안 기다리게 한뒤 9시55분 사무처직원이 呼名하며 줄을 세운후 수여식은 막상 10시8분에 시작.

그러자 再選의 洪性宇의원은 『국회의원을 30분이나 일찍 나오게하고 일개사무처 직원이 敬稱도 없이 呼名 줄을 세우는것이 의식개혁이고 黨內 민주주의냐』고 고함을 지르며 金裕祥총무국장에게 『누가이따위지시를내렸는지 밝히라』고 추궁.

이에 같이 줄을서있던 裵成東중앙정치연수원장이 『총무국장에게따지지말고 더센사람에게 따지라』고 만류, 고함은 사라졌지만 식은 냉랭한분위기속에서 8분만에끝났고 분위기를 알아차린 陳懿鍾대표위원등 주요당직자들도 굳은 얼굴표정.

이날 洪의원이 고함을 지르자 黨職개편에서 소외된 의원들은 『洪의원의 얘기가 옳다』고 맞장구를치면서 사무처의 관료적인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常任위원장內定者들, 투표소앞에서 미소와 악수攻勢

◆「大幅交替」 달리 3분의1만교체

民韓黨은 13일 치열한 競合속에 진통을 거듭하던 소속의원들의 국회常任委배정을 매듭지었는데 「大幅자리바꿈」의 豫告와는 달리 3分의1정도만을 교체하는 線에서 一段落.

당초 거의 全員교체방침을 내세웠던 이른바 인기常委인 內務·財務委의 경우 정원9명중 교체폭은 절반정도로 그쳤고 신청자가 극히 저조했던 法司·外務·建設·保社委등은 각 1명씩만을 교체. 그러나 民韓黨은 常委배정에따른 불만과 後遺症을 極少化하기위해 非人氣常委의원들에게 올림픽特委兼任혜택을주기도.

한편 柳致松총재등 지도부와 黨6役·대변인등은 非인기常委를 自請했는데 林鍾基총무는 配定의 원칙으로 『常委別 팀웍을 갖추면서 전문성을 살리고 非당직자 優待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黨內에서는 『전국구의원이 푸대접을 받았다』는게 衆評.

◆마라톤 常委長선거… 人氣度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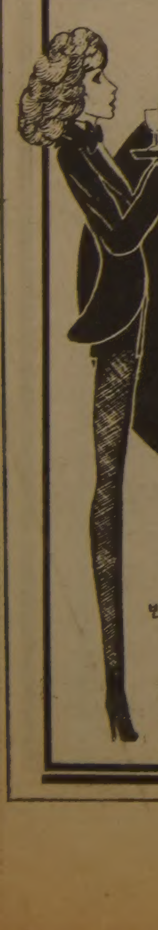
13개常任위원장을 선출한 13일하오의 국회本會議는 지난번 議長團선거때와는 달리 예상보다 평균2백30~2백40표수준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이날 투표는 한장의 투표용지에 13개상임위원장 이름을 한꺼번에 記載하는 連記名式으로 실시됐는데 在籍의원 2백75명중 입원중인 民正黨의 金正男, 民韓黨의 劉沃祐의원과 소속의원의 常委配定후 입원한 民韓黨의 林鍾基총무, 해외출장중인 高貞勳의원(民社)등 4명을 제외한 2백71명이 참가.

이날 최고得票는 李鍾贊운영위원장으로 2백56표를 얻었고 鄭在哲재무가 2백46표로 2位, 李海元문공·鄭東星교체위원장이 각각2백45표로 공동3位, 裵命國상공이 2백44票로 4位를 기록했는데 당초최고득표율을보일것으로 예상되던 奉斗玩외무위원장이 의외로 1백99표의 최저를 기록.

이날 투표는 하오 2시10분부터 약2시간10분간 진행된뒤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 하오5시40분까지 계속됐는데 투표가 계속되는동안 상임위원장 內定者들은 투표활동이 눈에띄는것을 우려한 탓인지 좌석을 로빙하는 대신에 투표소앞에서 미소와 악수攻勢로 한표를 부탁하는 모습.

이날 최고득표를 기록한 李운영위원장은 단6표의 散票와 9표의 무효표가 나와 그의 평소 人氣度를 반영했는데 奉외무위원장의 경우 무효표중 20여표가 「완」을 「환」이나 「원」으로 誤記한것으로 밝혀졌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부동산및사업체

매매알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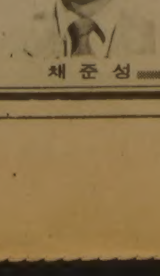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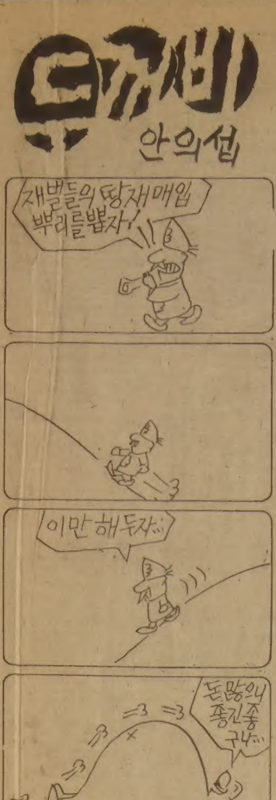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경력—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준성



과대宣傳「건강식품」된 서리

수입·판매商 40명 구속·입건
4~6배暴利…生態系 파괴도

알로에베라겔·토룡탕·화분립등 40종

서울지검특수3부는 13일 대영물산대표 魯英昭씨(37·서울中區太平路1街 대성빌딩501호)등 세칭 건강식품판매업자 13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무더기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적발된 업자들은 수입건강 식품과 토룡탕·굼벵이탕·화분립등을 성인병등에 특효가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과대선전, 시중에팔아 폭리를 취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전등에도 수록돼 있지않는 단순한 식품이거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에불과한데도 수입식품등이 각종 질병에 특효가있는 약품이라고 허위선전해 팔아왔다. 이중 「알로에베라겔」등 수입건강식품의경우 고혈압·당뇨병등 성인병치료에 특효약으로 허위선전, 시중유명백화점이나 대리점·약국등을통해 원가의 4~6배나되는 비싼값으로팔아 폭리를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단속은 이른바 건강식품을 국민들이 허위선전만믿고 남용하다가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치는등 국민보건에 미치는피해가크고 뱀·개구리·지렁이·굼벵이등을 남획함으로써 생태계파괴등이 심각해 이를막고 또 건강식품의 정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알려 일반의 그릇된인식을 바로잡는한편 무분별한 수입으로인한 외화낭비를 막는데 수사목적이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구속된 수입상 魯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리치라이프사로부터 선인장의 일종인 알로에의즙을 내 만든 「알로에베라겔」 32온스들이 1만7천7백병을 병당7천6백원정도에 수입, 각종 질병의 치료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것처럼 의약적효능을 기재한 허위광고물을 붙여 병당8천5백원씩 모두 1억5천8백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인데 시중소매상에서는 1병에 2만5천~3만5천원씩에 팔리고 있다는 것.

또 구속된 제조업자 李載林씨(59·삼복양행대표·서울中區藝舘洞70의72)는 지렁이를 원료로 토룡정을 만들어 한암·해열·위장질환·피부병·신경질환등을 치료할수 있는 의약품으로 허위선전, 모두 2천1백만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현재시중에서 의약품으로 허위·과대선전 팔리고있는건강식품은 이밖에도 케일·다이어트린과당·스쿠알렌·크로레라·스피루니나·슈퍼크릴등 40여점에이르는데 알로에의 경우 1배30여가지질환에 의학적 효능이있는 「신비의약」으로 선전하는등 대부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건강식품의 수입규제와 규격기준강정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구속된13명은 판매액1억원이상인 건강식품수입 업자 4명과 허위·과대광고의 정도가심한 토룡탕, 굼벵이탕·개소주·흑염소탕업자 9명등이며 불구속입건된 27명은수입건강식품판매업자 22명과 토룡탕·굼벵이탕·뱀탕업자 5명등이다.

◇구속된업자와 판매식품 ▲魯英昭씨▲李載林씨▲柳哲雄씨(40·국제알로에상사대표·서울鍾路區世宗路세원빌딩201호)알로에베라겔▲洪性一씨(44·서원상사대표·서울中區太平路2街광화빌딩1502호)"다이어트린과당▲張相曄씨(50·주식회사연도대표·서울中區忠武路1街25의20)알로에베라겔▲全炳鏞씨(36·한일토룡원주인·서울鍾路區社稷洞80의31)토룡탕(3의4·4의46)굼벵이탕▲申東善씨(38·정릉토룡원주인·서울城北區貞陵洞14의8)토룡탕▲洪起浩씨(27·대원물산대표·서울鍾路區新門路1街)▲洪性虎씨(33·보문흑염소주·서울城北區普門洞2街3의5)개소주·토룡탕▲崔琨珠씨(35·한양토룡원주인·서울西大門區延禧3洞光化門빌딩501호)크로레라▲李漢龍씨(42·한국봉산업대표·서울鍾路區孝悌洞2의2)토룡탕▲金点孫씨(40·보신원주인·서울鍾路區新營洞34)고양이탕▲李正石씨(42·우리보신원주인·서울麻浦區孔德洞427의4)고양이탕

◇정력제, 만병통치약등으로 과대선전됐던 소위 건강식품이 검찰수사로 된서리를 맞았다. 사진은 검찰에 압수된 「건강식품」들.

「꽃피는 4월」失踪

全國이 20度넘어 「푄」현상 "봄속 여름" 9일째

◇4월중서울의낮최고기온

날짜	금년치	평년치	기온차
1	15·8	12·9	+ 2·9
2	9·3	13·1	− 3·8
3	5·5	13·7	− 8·2
4	11	14·7	− 3·7
5	17	14·6	+ 2·4
6	22	15·2	+ 6·8
7	21·6	15·0	+ 6·6
8	23·5	14·1	+ 9·4
9	24	15·0	+ 9
10	26·7	15·1	+11·6
11	23·3	15·6	+ 7·7
12	22·1	17·6	+ 4·5
13	24·9	16·5	+ 8·4
14	19예상	17·4	+ 1·6

「꽃피는 4월」이 오다가 실종이 된모양이다. 겨울을 지난 우리나라의날씨는 4월 들어 잠시 봄기운을 보이는가했다가 「한달반 정도」를 껑충뛰어넘어 초여름같은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13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맑은편에 20도이상을 웃도는 기온분포를 보이고있는데 서울지방은 낮최고24·9도로 평년보다 8·4도가높았다.

달력상으로 4월이지만 기온으로는 6월초순의 더위를 보이고있는 「봄속의 여름날씨」.

4월의 첫휴일이었던 지난 3일 仁壽峰 조난 사고의 원인이됐던 찬기류가물러가면서 기온이 오르기시작, 寒食인 6일부터는 전국적으로 20도가넘는 고온현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10일엔 서울은 기온이 26·7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무려 11·6도가높은 6월중순의 날씨분포였다. 또 아침최저기온 역시 평년에비해 전국적으로 4~5도 이상이나 높았다.

중앙기상대는 9일째 계속되고있는 이같은 고온현상은 오츠크海와 東海에서 부는 찬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을때 일어나는 푄(Foehn)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 태백산맥 以西의 嶺西지방은 고온현상이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전망했다.

기상대는 푄현상으로인한 봄철속의 여름은 자주있었으나 금년처럼 이렇게오래 계속된적은 드물었다고 밝히고 지역적인 가뭄을 우려했다.

한편 기온이 이처럼 급상승하자 봄꽃은 예년보다 10일정도 앞당겨 개화했는데 기상대의 관측목(觀測木)인 벚꽃은 예년의 17일에서 무려 9일이나 앞당긴 8일에 개화, 근년에 보기드문 기록을 수립했다. 또 창경원의 벚꽃도 예년에비해 5일이나 앞당겨 8일에 개화했다.

푄(Foehn) 현상 : 푄이란 원래 스위스의 알프스산에서 북쪽골짜기로 내리부는 건조성 南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해에서 東風내지 北東風이 우리나라쪽으로 불때 푄현상을 보여 기온이 올라간다.

東海에서부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을때는 1백m를오를때마다 기온이 0·5도씩 떨어지나 산맥을 내려올때는 오히려 1백m마다 1도씩상승, 嶺東과 嶺西지방의 기온차가 현격해 지는것이다.

操業제한선 넘으면 어업허가 취소마땅

대법원특별부(주심 尹一泳대법원판사)는 13일 金大煥씨(전남麗水市公和洞11의72)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어업허가 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조업제한선을 넘어가 조업한 어선의 어업허가를 취소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金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光州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金씨는 지난81년5월22일 자기소유인 안강망어선이 서해어로제한선을 넘어 조업할수없게 돼있는 허가조건을 어기고 제한선 40마일밖인 中共領 바렌제도동쪽58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에서 『월선조업 사실만으로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로인해 어선이 폐선되거나 매각되어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므로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高校선발고사 면제

政府관리기업체 海外임직원자녀

국무회의는 13일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한정부관리기업체등 임직원의 자녀가 귀국후 고교에 입학할때 주무장관의 추천을받은경우에만 선발고사를 면제해주던것을 앞으로는 재외공관장이 추천한경우에도 면제해주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중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때 거주지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경우에는 배정할수 없던것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교육구청이나 교육장관할로 있는 다른학교군안의 중학교에도 배정할수 있도록했다.

2종醫保 운영 修正

木浦등 5곳 任意가입제등 검토

2종지역 의료보험 운영방식이 수정된다.

보사부는 13일 6개시범실시지역에서 보험료의 징수부진, 병·의원의 요양취급기관지정반납움직임등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江華를 제외한 木浦·洪川·沃溝·軍威·報恩등 5개 시범실시지역에대해 운영방식을 개선,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원하는 주민만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제와 오는84년까지로 한정된 시범실시기간과 그지역을 변경하거나, 보험료 부과액을 소득별로 재조정하는등의 방안등을 검토중인데 늦어도 내주까지는 종합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木浦등5개지역의보험료징수율은평균58%수준으로 木浦의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억9천8백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51.1%인 6억1천2백만원만 징수돼 49개요양취급기관중 45개병·의원이 지정반납하는등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날 『江華지역은 징수율이 92%로비교적좋은 편이어서 당연적용지역으로 존속시킬방침』이라면서 『임의가입제를추진할경우 미가입주민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측면도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것과함께 이들지역의 누적된 적자폭을보전해주기위해 1억3천만원을 운영비를지원해줄 방침이다.

6개지역의보험실시지역 주민은 모두 65만4천33명으로 洪川, 沃溝, 軍威는 81년7월부터, 江華, 報恩, 木浦지역은 지난해7월부터 2종의료보험을 실시해왔다.

醫保진료비 支給늑장 불만

木浦 45개病醫院 요양거부

【木浦】제2종의료보험시범지역인 전남木浦시내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12일 요양기관취급지정서를 시의사회 회장단에 반납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에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했다.

木浦시내 제2종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9개 병·의원중 적십자병원을비롯 시립병원·홀름발병원·결핵병원등 종합병원을 제외한 45개 병·의원들은 이날 진료비지급이 늦은데 불만을 품고 요양기관취급지정서를 시의사회 회장단에 반납한것.

이들 병·의원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의 총회에서 2종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진료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주장,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보사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나 당국으로부터 보장이 없자 지정서를 반납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雜務대폭 줄여

장부·지시 公文書등

大邱市 敎育委

【大邱】大邱시교위는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수 있도록하기위해 각급학교의 각종 장부를 대폭 통폐합하고 본청 직원의 학교방문을 통제하는 한편 각종지시공문서를 감축하는등 교원잡무경감대책을 마련, 금년도역점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13일 大邱시교위에 따르면 교원들의 잡부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실적을 나타내기위해 불필요한 장부를만들어 비치하거나 무리한 환경정리 학교관리등으로 교원들을 잡부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잡무경감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5行뉴스

◆孝昌園순국선열 추모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64주년을 기념하는 제5회孝昌園순국선열 7위합동추모제전이 13일상오11시 金相吉광복회장, 李鍾贊의원등 각계인사와 유족·시민등 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孝昌공원에서 열렸다.

◆手票남발 갈큰行員영장 서울麻浦경찰서는 13일 K은행 西江지점행원 韓모군(19)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韓군은 수표발행업무를 맡고있으면서 지난해12월16일 액면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1장을 멋대로 발행한것을비롯 지금까지 8차례에걸쳐 23장의 자기앞수표(액면7백95만원)를발행, 포니승용차1대와 전자오르간등 악기20여점을 사는데 썼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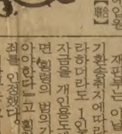
◆鎭海군항제 어제 폐막 【鎭海】지난 보름동안 계속된 벚꽃축제인 제21회 군항제가 13일 폐막되었다.

전국에서 이번 군항제기간에 鎭海지방을 찾은 관광인파는 모두 1백60여만명을기록했고 관광버스 2만여대를 비롯한 각종차량 9만여대와 정기열차및 임시열차가 이들관광객을 수송했다.【聯合】

◆굴진보조원 바위맞고숨져 【太白】12일 하오11께 석탄공사 長省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하던 석공소속 굴진보조원 엄재완씨가 천장에서 떨어진 바위에 머리를맞고 숨졌다.【聯合】

카바레서 鎭火작업하다

消防대원 3명火傷



【大田】13일 하오1시께 충남大田市東區中洞318 홍명백화점3층 홍명카바레(대표 김용주·57)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1천2백24㎡의 내부를 태워 1억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하오2시30분께 꺼졌다.

이 불로 진화작업을 벌이던 大田소방서 박준서씨(30)등 4명의 소방대원이 화상을입고 大田市 선병원에입원치료중이다.【聯合】

申善浩피고 執猶4년

栗山사건 公金횡령·不渡혐의는 무죄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는 13일 전栗山그룹대표 申善浩피고인(36)에대한 재항소심공판에서 징역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깨고 申피고인에게 징역5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의파기환송취지에따라 『1인회사라하더라도 1인주주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했다면 횡령의 범의가있다고 보아야한다』고 횡령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申피고인에대한 횡령혐의중 2억1천여만원의 회사공금을 변태인출한 부분에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중 12억원의 부도는 사후판상되었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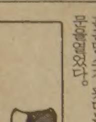
申피고인은 栗山그룹사건으로 지난79년4월구속돼 1심에서 징역7년 2심에서는 징역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횡령혐의에대한 2심의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이유로 파기됐었다.

申피고인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지난80년7월 신병을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都心의 「道士」

서울타워 관측과장 徐載昱씨

"세계 세번째 높은직장서 하늘생활"



도시를 상징하는 타워를가진곳이 세계에는 많다. 파리가 그렇고 모스크바, 토론토도 높다란 타워를 자랑한다. 이 타워들은 높이오르길 좋아하는 인간심리를 타고 저마다 관광명소로 발돋움했고, 또 하고있다.

서울남산에 우뚝 솟아있는 4백79·7m의 서울타워도 손색이 없는 명소이다. 매일아침 서울에서 제일높은 곳으로 출근하는 徐載昱관측과장(49·사진)은 서울타워가 서울에서 빼놓을수없는 관광명소가 됐다는 자랑으로 말문을열었다.

그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69년 9월30일에준공, 지난80년10월부터 일반에게 개방된이래 지난12일까지 3백9만4천92명이 이곳에올라, 서울을 내려다 보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평일엔 하루 평균5천명, 주말에는 1만명정도가 이곳에올라 잠깐이지만 신선기분을 낸다.

전직체신공무원인 徐씨는 3년째 「하늘생활」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타워 (해발5백54m)와 토론토CN타워 (5백49m)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다는 徐씨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6층 회전전망대식당에 앉으면 仁川앞바다의 고깃배와 開城의 송악산이 멀리 한폭의 동양화처럼 눈에 들어오고 3·1빌딩이 큰 성냥갑처럼 보이는 정도다.

35분에 한바퀴도는 82평의 회전전망대는 開城이 보인다는 점에서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기도한다. 지난 한식날에는 수십명의 망향객이 이곳에 올라 이북에 두고온 고향을 향해 조아려 곳곳이 적했다.

서울의 지붕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사는 徐씨의 마음은 편한것만은 아니다. 타워에 오르면 우선 봄아지랑이 서리듯 희뿌연 서울의 하늘이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타워에서는 무엇보다 시계가 좋아야하는데 오염된 공기가 앞을 막는다. 빌딩에 가려 점차 그 의젓함을 잃어가는 南山도 애처롭기만하다.

『땅에서 살면 시야가 좁아 잘 모르지만 이곳에 오르면 인간사 모든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심산유곡에사는 道士같은 말투로 말끝을 맺는다.

【許熙濬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4:00	화·목·일	18:4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3:3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10:00	수·금·일·월	19:30	호노루루·東京

뉴욕➡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07	화·목·금·일	23:50	목·토·일·화	06:0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50	월·수·금·일	01:40	화·목·토·월	06:1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30	수·금·일·월	19:3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제일여행사 535-2377 ● 한국여행사 531-4607

三美「怪力」또 OB울려

任昊均 변화구에 強打線 무색

프로야구

3-1

슈퍼스타즈의 괴력앞에 또 다시 고이 무릎을 꿇었다. 三美슈퍼스타즈는 13일 적지 大田에서 벌어진 OB베어스와의 2차전에서도 집중10안타를 터뜨리며 任昊均의 절묘한 변화구로 OB강타선을 산발3안타 1실점으로 잠재워 3-1로 승리, 4승2패로 전기시즌 단독선두에 올라섰다.

프로원년의 챔피언 OB는 홈구장에서 지난해 16전전승을 거두었던 최하위팀 三美에게 2연패당하는 치욕을맛보았다. 올시즌서 OB는 4連敗를 기록했다.

三美의 기교파투수 任昊均은 이날 좋은 컨트롤로 OB의 31타자를 산발 3안타, 1포볼, 2삼진, 1자책점으로 선방, 금년들어 2승을올렸다.

고교시절 정들었던 大田그라운드를 찾아와 2회초 1死후 타석에 들어선 三美5번 鄭求善은 마운드의 朴相悅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어쩌면 한팀동료도 될수있었던 사이.

朴相悅은 東大門商을 나와 MBC·OB간의 드래프트에서 OB의 선택을, 鄭求善은 OB연고지의 大田高를 나왔으나 OB의 버림을 받았던 선수.

鄭求善이 느려친타구는 우익수앞 깨끗한 三美 첫안타였다.

6번 李善雄, 7번 金大顯도 잇달아 朴相悅을난타, 三美는3연타로승부를 결정지은 선제2점을 올렸다.

4회초에는 李善雄이 포볼로 걸어나간 2루주자 琴光玉을 좌월 2루타로 불러들여 1점을 추가.

22연승의 에이스 朴哲淳을 잃은 OB는 마운드의 약세로 타선마저 침묵,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1회말 2死후 3번 尹東均이 단타, 5회말 선두 5번 申慶植이 좌중월 2루타로2루까지 진출했을뿐 7회까지 任昊均의 호투에 눌려 득점할 엄두도 내지못했다.

8회말 OB는 2死후 8번 鄭宗鉉이 포볼을 고르고 보크로 2進, 9번 金光洙의 우중월3루타로 1득점,영패를 모면했다.

◇13일전적

◆대전

	1	2	3	4	5	6	7	8	9	계
삼미	0	2	0	1	0	0	0	0	0	3
OB	0	0	0	0	0	0	0	1	0	1

◆잠실

	1	2	3	4	5	6	7	8	9	계
삼성	0	0	0	1	0	0	1	0	0	2
MBC	0	0	0	0	1	0	0	0	0	1

◆부산

	1	2	3	4	5	6	7	8	9	계
해태	0	0	0	0	0	0	0	1	0	1
롯데	0	2	0	0	0	0	3	1	×	6

롯데는 해태에 樂勝

白仁天빠진 MBC、三星에패배

三星은 잠실원정 경기서 4회초 9번 金海鍾의 우중월 적시 2루타로 선제점을 올리고 7회초 2번 吳大錫의 좌전적시타로 1점을 추가, MBC 靑龍을 2-1로 물리쳤다.

MBC는 감독겸 지명타자로 활약하던 白仁天과 프로야구개막전을 역전만루 호머로 장식했던 강타자 李鍾道가 빠지고 金容允·金龍達을 4·5번 중심타자로 기용했으나 선두의 李海昌 金在博이 애써만든 찬스를살려주지 못해 분패했다.

롯데는 과자라이벌 해태타이거즈와의 釜山1차전에서 9안타를 점수에 연결, 6-1로 낙승했다.

◇중간순위 <13일현재>

	승	무	패
①삼미	4	0	2
②MBC	5	0	4
③삼성	3	1	3
④롯데	3	0	3
⑤OB	3	0	5
⑥해태	1	1	2

아시아巡廻골프 9次戰

18개국서 3백71명참가

제2회한국오픈및 아시아순회골프대회 9차전이 14일상오7시반서울컨트리클럽(파72·전장6천3백96m)서李源京체육부장관의티업으로 개막, 4일간의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에는 18개국서 프로골퍼2백53명, 아마1백18명등 모두3백71명이 출전, 12일 열린 예선서 1백98명이 탈락해 본선에 1백62명이 출전해 지난대회우승자인 金丞學등 23명이 자동본선진출권을 따냈고예선을거친 29명을 포함, 52명이 본선에올랐다.

이번 대회상금은 지난해보다 1만달러가 인상된10만달러로 1위에 1만6천달러, 2위에 1만1천달러가 주어지며 27위 내에 든 선수는 1천달러이상의 상금을 받게 된다. 또 특별상금으로 홀인원 2천달러, 코스레코드5백달러, 데일리베스트 3백달러가 주어진다.

◇70년이후 우승자

70	韓長相 (한)	289
71	〃	281
72	〃	276
73	金承學 (한)	282
74	呂泰雪 (〃)	286
75	郭吉雄 (중)	284
76	다까하시 (일)	214
77	何明忠 (중)	285
78	金承學 (한)	277
79	沈忠寶 (중)	289
80	陳志明 (중)	214
81	〃	285
82	金佳憲 (한)	285

천하장사 씨름대회 開幕

상금 1千5百萬원 걸려

한국민속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천하장사 씨름대회가 14일상오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개막, 4일동안 3백40여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천하장사를 뽑는 민속씨름대회는 太白장사급(75kg이하) 金剛장사급(85kg이하) 漢拏장사급(95kg이하) 白頭장사급(95kg이상) 등 4체급으로 나뉘 실시되는데 천하장사타이틀을 차지한 우승자에게는 1천5백만원의 상금이, 각체급1·2·3위에게는 3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천하장사대회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 열리게되며 내년부터 단오절과 추석절등 전통적인 명절에 개최된다.

김태성등 2회전에

國際청소년 테니스

【방콕=聯】 12일 방콕 후아마크 테니스 코트에서 개막된 83년도 타이국제 청소년 테니스 선수권대회 첫날 18세이하 남자단식경기에서 한국의김태성(부산동중)은 홍콩의 데렉·림을, 이병송(마포고)은 타이의 왈룸·차레온롱을 각각 세트스코어 2-0으로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또18세이하 여자단식경기에서는 김소영(중앙여고)이 필리핀의 니나·카스틸레요를 2-0으로 누르고 2회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은주는 필리핀의 제니퍼에게 2-0으로 패했다.

韓美日 아마복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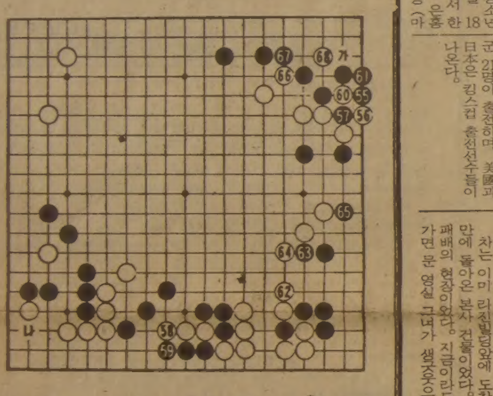
오늘부터 서울서

韓·美·日 3개국 친선아마추어 복싱대회가 14·15일 이틀간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14일에는 韓·日전 8체급경기가, 15일에는 韓·美전 13체급경기가 각각벌어진다.

이번대회에는 한국의 상비군 21명이 출전하며 美國과 日本은 킹스컵 출전선수들이 나온다.

第14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14局 第4譜 55~69 (각5시간·덤5집반)

白(8段) 徐能旭〈1勝2敗〉

黑(7段) 崔永章〈2勝2敗〉

黑 인색한 후퇴

상대가 고분히 내말을 들어주지않을때는 자칫 오기섞인 공격이 나오기 쉬운 모양이다. 승부를 따지기전에 기분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黑55에 대해 白이 57자리를 잇지않은것은 기세이며 당연한 반발인데 黑도 자연 패를 안할 도리가없다—해서 얄궂은 패싸움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러나 白60때 黑61로 이은것은 문제였다. 이왕 작전을 실패한 마당에서는 냉정하게 大勢를 감수할 필요가 있었다. 61은 「간」자리에 후퇴하여 약간의 손해로 끝을 내야했던것이다.

黑은 黑61도 일단 후퇴한 수임이 분명하지만 이를테면 인색한 후퇴라고나 할까. 뒤에 白66、68의 날카로운 수단을 유발하여 이곳에다 크나큰 화근을 남겨놓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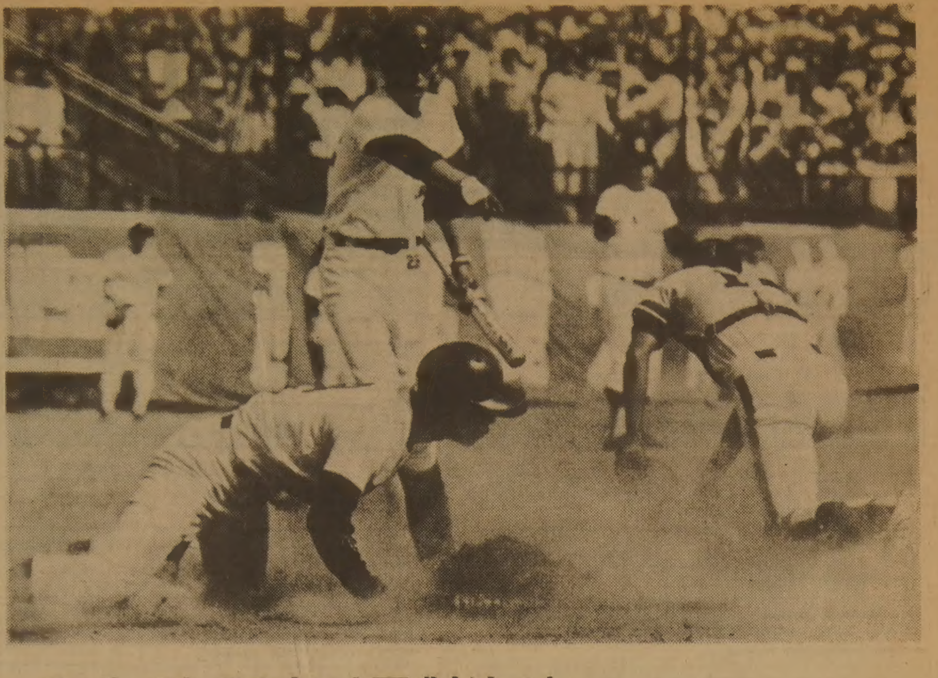
崔7단 자신도 국후「黑61은 이상했다. 차라리 가벼운기분에서 黑「나」의 패감을 써 놓고 그랬다」며 거듭거듭 뉘우치고있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패싸움이다.

그리고 白의 패감에 문제가 생겨서 黑도 그런대로 싸울만하게 된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다음이던 白62. 崔7단을 비롯한 여러고단자의 의견인즉 『白62는 63을 밀어야 정수』라고 한다.

黑63、65로 대한것이 활착이란 예기며 그러나 徐6단은 마침내 白66、68로 진짜패를 걸었다.

69…57。【一凡】



◇"홈플레이트를 밟아라!" 금년첫延·高야구대결 8회초 1死후 高麗大3루주자 崔武永(左)이 3번 金光林의 2루수앞땅볼로 홈에대시, 태그당했으나 延世大포수 金成炫⑮이 볼을 떨어뜨려 세이프. 이순간 타석에 있던 4번 徐孝仁⑪이 崔에게 홈플레이트를 밟으라고 소리치고있다.

올해 첫 延高야구對決서

高麗大가 이겼다

安彦學、投打서 수훈 3-0

安打 더 많이 뽑은 延大 끝내굴복

프로에 눌린 球場 오랫만에 "滿員"

白虎旗 야구

高麗大가 금년도 첫高延야구대결서 승리를 거두었다.

13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33회 백호기야구대회 2회전서 高麗大는 7번 安彦學이 우월2루타로 1점을 선취하고 8회초 2안타와 延世大 선발투수 金正洙의 와일드피칭, 포수에러등을 묶어 2점을 추가, 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高麗大는 올들어 아이스하키·농구·축구·야구에서 모두 延世大를 이겼다. 지난해 양교 정기전야구에서도 高麗大가 3-0으로 승리했었다.

이날 대전에는 양교응원단 9천여명을 비롯 1만5천여관중이 스탠드를 메워 썰렁했던 서울운동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延世大는 高麗大의 朴鍋俊·安彦學으로부터 高麗大보다 3개가 많은 9개의 안타와 포볼5개를 얻었으나 1점도 얻지 못하고 완패, 비경제적 야구를 했다.

초반부터 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피로한 기색을보이던 高大에이스 朴鍋俊이 7회말 1死후 포볼을 허용한후 자진강판, 위기를 맞았으나 유격수를 보던 安彦學이등판, 5안타를 맞으면서도 점수를 내주지않고 역투하여 高麗大를 구원했다.

2회초 1점을 선취한 高麗大는 7회말의 위기뒤에온 찬스를 승리로 연결시켰다.

8회초 선두9번 崔武永이 1루 강습안타로 나간후 1번 韓英俊의 타석때 延世大투수 金正洙의 6구가 포볼이 되면서 와일드·피칭으로 뒤로빠져 주자는 순식간에 1·3루。

이어 高麗大에 강하다는우완 尹學吉로 마운드를 바꿔 2번 盧燦曄을 내야땅볼로 잡고3번 金光林의 땅볼을2루수 金寬湧이 잡아 홈에 송구, 포수 金成炫이 3루주자 崔武永을 태그했으나 볼을떨어뜨리는 바람에 1점을 허용했다.

이틈에 2루까지 뛴 金光林도 柳志弘의 중전안타로홈인, 高麗大는 3-0으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延世大는 9회말 마지막공격 2死후 대타로 나온 李曦宰와 9번 田應天이 연속 좌전안타를 때려 주자1、2루의 추격찬스를 맞았으나 1번 李順喆이 유격수앞에 땅볼을 때려 추격에 실패했다.

延世大는 5회말에도 주자 2·3루에서 1번 李順喆이 고의 四球로나가 만루를 만들었으나 2번 金聲來가 풀카운트의대결끝에서삼진을당했으며 7회말 2死 1、2루때 2번 대타 朴七星의 우전안타를 틈타 2루주자 金寬湧이 홈까지 대시、高麗大 우익수 金光林이 원바운드로 정확하게 포수에게 송구하는 바람에 간발의차로 태그아웃당해 동점기회를 잃었다.

이날 嶺南大는 3·6·7회에 각각 1안타씩을 때리고 포볼 에러등을 묶어 8회말 3안타로 2점을 올린 지난해 우승팀인 仁荷大에 3-2로 신승했다.

◇제5일전적 ▲2회전

	1	2	3	4	5	6	7	8	9	계
영남대	0	0	1	0	0	1	1	0	0	3
인하대	0	0	0	0	0	0	0	2	0	2
고려대	0	1	0	0	0	0	0	2	0	3
연세대	0	0	0	0	0	0	0	0	0	0

땅끝에서 오다 <31>

金成一 作 宋龍 畵

안개속에서 온 密書 ④

레코드·로열은 한강을 끼고 달리다가 여의도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높다란 전경련(全經聯)빌딩 뒤쪽으로 리진(利進)빌딩의 거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인데도 거의 전층이 불야성처럼 불을 밝혀놓고 있었다.

평소에도 늘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철야 당직을 두어야 하는 것이 종합상사의 생리였다. 비록 이곳이 한 밤중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은 한 낮이므로쉴새없이 상황이 발생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마치 왕년의 대영제국 영토에 해가 지는 날이 없다고 했듯이 현대의 종합상사들은 24시간 지구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 참 임대리님』

『네?』

『여권을 제게 맡겨주셔야겠습니다』

『……?』

『아, 임대리님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군요』

『뭘 말씀이시죠?』

『모레까지 서류가 완결될 수 있도록 수배를 하고 있읍니다만, 된다면 임대리님께서 트리폴리까지의 배달을 역시 계속 해 주시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트리폴리까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동경지사에서도 상당한 관련업무 수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임대리님께서 리비아 현장의 상황과 이 프로젝트의 분위기를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프로젝트 본부장의판단이십니다』

『……』

언제나 그들의 판단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니셜을 J·H·LIM 으로 쓰시죠? 엘 아이 엠……』

『네, 그렇습니다』

『이미 트리폴리행 비행기를 예약해 두었읍니다. 수요일은 트리폴리행 직행편이었기 때문에 KE901로 출발하여 파리에서 UT407로 연결됩니다. 김포공항출발은 21시20분이고 파리에서 출발하는 UT407은 다음날, 그러니까 1월7일 오후15시 정각입니다』

『리비아 비자가 빨리 나올까요?』

『사전에 특별히 수배를 해 놓았으니까 잘 될겁니다. 임대리님의 여권넘버는 동경지사를 통해서 알았고, 사진은 신상명세서에 있는것을 우선 떼어서 사용했읍니다. 나중에 인사부로 사진 한장만 우송해 주십쇼』

준호는 안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어 그에게 건네었다.

과연 본사 직원답게 그는 영리하였다.

차는 이미 리진빌딩앞에 도착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돌아온 본사 건물이었다. 경쟁의 싸움터였고、패배의 현장이었다. 지금이라도 회장실에 뛰어 올라가면 문 영실 그녀가 생긋웃으며 맞아줄것만같았다.

張吉山 <1715>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5)

원향은 사선골에 마련한 신당을 그대로둔채 사황봉과 단군대와 아사봉을 번갈아오르내렸다. 자신의 몸주가 되는 단군 성조님께서 낳으시고 살으시고 승천하신 영처(靈處)를 쫓아 더욱 강한 힘을 물려받으려는것이었다.

원향은 사황봉 바로 근처에 바위절벽이 처마끝처럼 비죽이 솟은곳에다 수도처를 잡았다. 원향은 새벽에 칠성을 살피고 일어나 먼저 알자리에 찾아가 목욕하고 사황봉까지 올라 해맞이를하였다. 그리고는 바위아래 고요히앉아 합장하고서 마음을 모았다. 어느꿈결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원향에게 책을 주었고 그뒤에섰던 이들이 차례로 나오는데, 청룡을 타고 오는 서해용왕은 여의주를 주었으며 백호를 타고 오는 구월산신은 염주를 걸어주고 말에 탄 최장군님은 청룡도를 내려주었다. 만신 할머니가 연꽃으로 치장한 가마에 타고 앉아서, 네 소임이 중하고 또 중하다. 모든 신명들의 인정을 받았으니 두려워말아라, 하고는 사라졌다. 원향은 신어머니를 부르며 두팔을 젓다가 깨어 일어났고 아래쪽에서 숲을 흔들고있는 쪽포소리뿐이었다. 백일 기도를 드리는 사이에 가을이 저물어갔고 서리내릴무렵하여 원향은 그 사선골 폐허 가운데 있던 신당차린 오막살이로돌아왔다. 이따금씩 약초 캐는 이나 나무꾼 또는 버섯 따는 아낙들이 지나다가 새로이생겨난 처녀 무당의 기도처를 보고 들르기 시작하여, 은율과 송화의 산촌에서 시골아낙네들이 곡식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차츰 큰 굿을 청하는 여자들도 많았으나 원향은 굿만은 아직 사양하였다. 거의가 병이나 환난을 액막이 해줄 비나리 고사가 대부분이어서 이른바선무당인 셈이었는데, 신통하게도 원향이 아픈이의 몸에 손을대어 넋두리하면 금방나았다.

오계손은 오진암법회 이후에 여환과 약조 하였던대로 우선 월정사 사당말의 임가며 백련이등과 더불어 관북 관서쪽으로 흘러가는 동급들 가운데서 믿을만한 광대패들을 찾았다. 먼저 평양 감계 의주로 나가는 패와 원산 함흥등지로 나가는 패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주로 갯가 어부 선상을 또는 극변지의 군졸이나 만상(灣商)을 상대하였고, 대도회라면 역시 평양 의주가 으뜸이었다. 내륙으로는 운산(雲山)과 회천(熙川) 등지의 광산으로 나가는 패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시 연희철이 끝나면 거의 평양 근교나 원산 외곽에서 모이니 겨울철에는 휴면하는 까닭이었다. 맞임개에서 조운선을 타고 월당강을 빠지면 이내 대동강이어서 내왕에 수월 하였다. 오계손은 천지이 박수이니 간단한 무구(巫具) 챙겨 지고 해서의 곳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그는 자비령 길산네산채에도 갔고, 평산서 안협을 여러차례 오르내렸다. 즉 안협 이정명이네를 통하여 홍성산 장군사에 의탁한 탑고개 유민들과 연락하였으니전성달은 이를 받아서 다시 해서 관서 쪽의 소식을 여환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역시 해서에서는 감영(監營)이 있는 해주(海州)가 요지였으므로 강령(康翎)에떨어진 구월산 유민들과 송화(松禾) 문화(文化) 신천(信川) 재령(載寧) 등지의 천민들을 묶는 일이 중하였다. 주로 무업 또는 광대질 또는 행상 또는 산간의 승려들이었는데 대략 손쉽게 꼽아서 서른 남짓은 될듯 하였다. 이들이 다시 삼 사십씩의 대(隊)를 이루면 천여명 가까이 될것이고 감영은 쉽게 점령할 수가 있을것같았다.

Springwood Homes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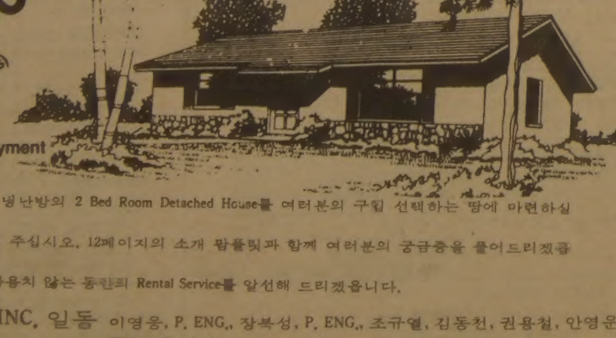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릿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복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철, 안영운

TEL : 661-3124

캐너더에서 제일 큰 WEST EDMONTON MALL

한국인 고급상점 입주자 모집

1. 화장품
2. 구두
3. 고급양장점
4. GIFT
5. CATIER 후렌차이즈
6. 털옷점, 악세사리, 보석상, 캔디등…

▣입주 : 83년 8월초

토론토의 EATON CENTRE보다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한 고급상품만을 취급하는 캐너더 최고의 백화점임.

연락처 : 1-403-487-4393 김 용 한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튼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길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APT 룸메이트구함. 시내에서 10분.
1 Room과 리빙룸. 월200불. 즉시입주가능함.
#1410. 55 Triller Ave.(직접내방요) 전화 : 624-0098

파트타임, 샐러드 만드실분 구함.
9:00a.m.~1:00p.m. 주6일 경험 필요없음.
전화 : 421-9144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여자분 원함.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5-033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2살 이상인 애기 봐드립니다.
정원이 넓어서 애기 놀기 좋음.
전화 : 745-0939 Mrs. 정

가게 맡아서 하실분.
주매상 현재 2천불. (더 올릴 수 있음) Rent $200
전화 : 691-4426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
오후6시-오후 10시까지(주7일간). 시간당 $4
원하시는 분은 삼복식품으로 직접내방 바람

가정에서 재봉일 하실분구함.
(오바록과 공업파워미싱소유자로서 유경험자)
상세한 문의는 전화 : 530-1046(오후6시이후)

파트타임 스토어 헬퍼 구함.
유경험자원함. 남녀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전화 : 883-1956(오전중) Mr. 리.

버라이어티 스토어
리스 또는 매니지먼트. 주매상 $9,000
전화 : 251-3559(12:00~6:00pm)Mr. 송

풀타임 경험있는 캐쉬어 여자구함
전화 : 465-8167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 금~토
55 University Ave. Mrs. 한.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 (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충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빵가게 (프라자내)
$50,000(도구 포함). LEASE(5 YRS)
Dufferin & Steele. Call Susan Tallilo 745-7551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Food Store.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드라이크리닝 & Laundry 완전 도구 매매
전화 : 593-5454, 276-7245 Mr. Angelo

비데오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모든 종류 있음
가격: 대당 $1,700
전화 : 924-559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포함) 주매상 $6,000
전화 : 1-547-0841 Mr. 조

이익 좋은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일요일 문닫고 2층에 살림집 있음.
자세한 문의는 전화 : 266-4866.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MEAT SHOW CASE(고기냉장)길이 12휘트(ft)
537-1664 Mr. Foto. 972 Ossington Avr.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주매상 $7,000이상+건물
전화 : 921-4283(오후1시-3시사이)
456 Gerraed St. E.(at River)

보석·선물가게 매매
주인이 은퇴함(외국사람)
전화 : 742-7399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밍크직매점 후랜차이스 매매
다운타운 호텔안에 있음. 연수입 보장.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전화: 532-8662, 535-7878

★웅 담★
캐네디안산. 증거물 있음.
여러 크기. 가격 : $70
전화 : 534-7786 (저녁)

최신형 고급 카메라(신품) 매매
라이카 M4-P, 90mm 렌즈, 와인더, 메타, 케이스
Regular 가격 : $2,500. 파는 가격 : $1,740
★ 꼭 사실 분만 연락요망.
전화 : 630-5474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베츨러 Sublet
전망좋음. 즉시 입주 가능. 월$319
전화 : 533-8197. King & Dufferin

아파트 임대. Large 1 Bed Room.
수영장. 사우나있는 고급 아파트.
$410/Month. Mr. 리. 전화 : 863-6072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스익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GRAND OPENING

스페샬세일

ZENITH VIDEO DIRECTOR · MODEL VR8500PT

신제품 비데오 스페샬

⊙아직 비데오를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장만하십시요.

밑기어려운 가격!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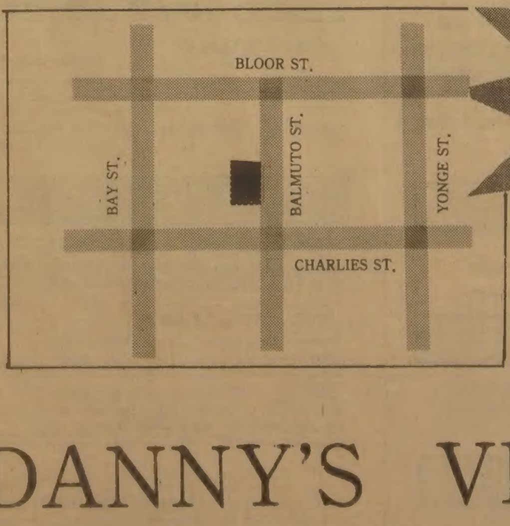
$699

MODEL VR8500PT

- 24 Hour, 1 Event Timer
- Optional 5-function Remote Control
- Pause/Stop Action

ZENITH

신장개업



DANNY'S VIDEO CO.

11 BALMUTO ST. TOR.
TEL : 924–8937

Sans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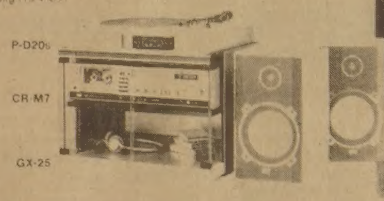
신형모델 전축 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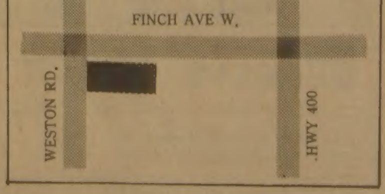
컴퓨터 씨스템

Cassette Receivers CR-M7/CR-M5

Designed to Give Your Living Room More Living Room

Audio cabinet GX-25 and matching speaker system J7.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대표 전광재